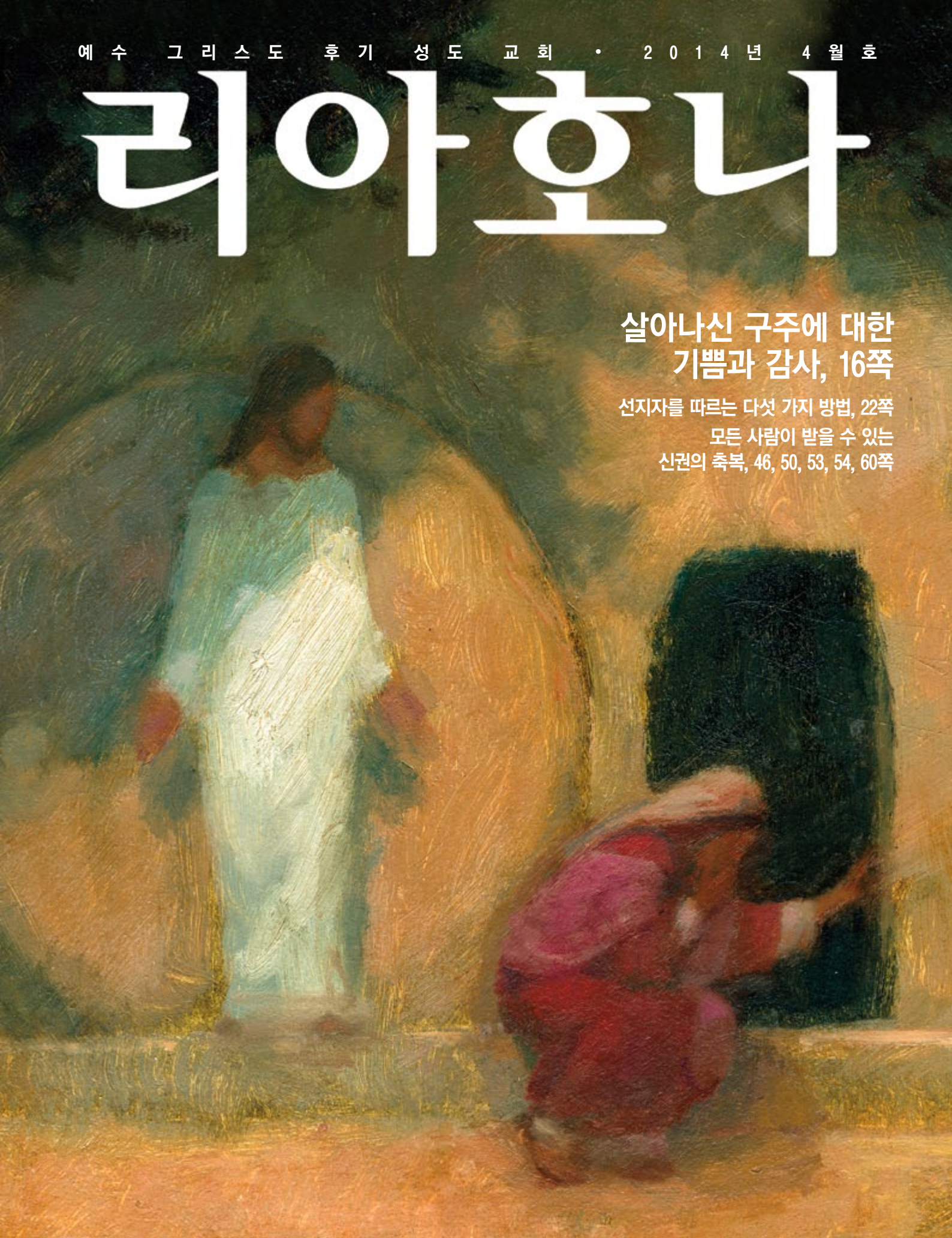


# 리아호나

살아나신 구주에 대한  
기쁨과 감사, 16쪽

선지자를 따르는 다섯 가지 방법, 22쪽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권의 축복, 46, 50, 53, 54, 60쪽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15~16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단단히 고정시킨 닻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구주이자 구속주

특집 기사

- 12 우리는 주님의 손입니다  
닐 케이 뉴얼  
*브라질, 에콰도르, 필리핀, 러시아  
성도들이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 16 특별한 증인들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구주에 대해 증거한다.*
- 22 선지자를 따르라  
윌리엄 알 워커 장로  
*우리는 문슨 회장님이 직접 보이신  
모범에서 다섯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 26 각국의 개척자들: 필리핀: 바다의  
섬들 위에 감도는 영적인 힘  
*필리핀 성도들은 자연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 32 구원의 계획을 활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라린 포터 건트  
*구원의 계획은 인생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 본부 기사

- 8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 1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부활절까지 7일
- 36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  
스탠 펙슬리

표지  
 앞쪽: 정원 무덤, 제이 커크 리차즈, 복사 불허 표지  
 안쪽: 사진 삽화 존 루크.





40

- 40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캐더린 넬슨과 하이디 맥콩키 단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한 옷을 입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 44 청년 성인 이야기 핀란드에서의 개종과 희생 멀리사 젠티노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그녀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요?

- 46 주님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엠 러셀 벨라드 장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다.
- 50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봉사함  
데이비드 엘 벅  
아론 신권 봉사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삶에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 53 모든 사람을 축복할 권능  
신권 축복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간증
- 54 가정에 신권의 축복을 가져옴  
보니 엘 오스카슨  
자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족의 상황이 어떠한든 간에 여러분은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 권능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 56 합당성에 대한 확신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신권을 사용하도록 부름받을 때 그에 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 60 문과 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신권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시다.
- 62 질의응답  
“학교에서 낙태와 같이 복음 가르침에 위배되는 주제가 언급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64 참인가 거짓인가?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퀴즈를 풀어 보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68

- 67 “그건 정말 쉽네요, 할아버지!”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라쿠엘은 물문경을 읽기에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 68 포터의 약속  
캐롤 엠 스티븐스  
포터는 미처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성약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 70 가정에서 초등학교 적용하기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중심이다  
젠 테일러
- 72 명석한 생각
- 73 큰 돌 옮기기  
테렌스 엠 빈슨 장로  
주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 74 전 세계 친구들  
저는 필리핀에 사는 드리아입니다
-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 81 선지자 초상화  
하워드 더블류 헌터





2014년 4월호 제51권, 제4호  
리아호나 10984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다이더 에프 우홀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호세 알 알론소, 머빈 비 아놀드, 세인 엠 바운, 스텐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플룬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기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전 베넷, 브리트리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베드워드, 매튜 디 플리턴, 민디 라예 프리드만, 로리 풀러, 게렛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마이클 말 모리스, 셸리 존슨 오드커크, 조슈아 케이 페리, 켈 핀보로우, 라타드 엠 톰니, 폴 벤덴버그, 머러사 윌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웃슨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스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엠 벤틀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킴블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코트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너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케빈 시 벵코스, 콘니 바소프 브리지, 줄리 바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디니스 카비, 지니 케이 넬슨, 가일 타테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리우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69호, 제51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4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ahona.or.kr](http://www.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hanmail.net](mailto:koread@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잡지 구독 신청서”는 [www.lds.or.kr](http://www.lds.or.kr) “교회와 연락하기” 배부 센터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tel)(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pril 2014 Vol. 38 No. 4. LIAHONA (USPS 311-480) Korean (ISSN 1521-479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사진 출처: 데이비드 스토크

**“부활절까지 7일”, 10쪽, “특별한 증인들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16쪽:** 부활절 전 주에 가족과 매일 영적 모임을 할 때 이 기사들에 나오는 자료를 활용해도 좋다. 부활절 전 일요일을 시작으로 17쪽에 있는 제일회장단의 간증을 읽고 “부활절까지 7일”에 나오는 지시를 따른다. 그 후, 날마다 두 사도의 간증을 읽고 “부활절까지 7일”에 나오는 성구와 노래, 활동 등을 활용하여 가족과 메시지를 나눈다. 부활절 날에는 [lds.org/bible-videos](http://lds.org/bible-videos)에 있는 성경 비디오 “He Is Risen”을 시청해도 좋다.(여러 언어로 시청이 가능함)

**“그건 정말 쉽네요, 할아버지!” 67쪽:** 이 기사를 읽고 나면, 여러분도 시간을 재 보고 싶을 것이다. 가족이 물론경 한 쪽을 읽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재 본 후, 그 시간을 토대로 가족이 물론경을 다 읽는 데 얼마나 걸릴지 어렵해 본다. 함께 물론경을 읽는 목표를 세워도 좋다. 일정을 세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읽는다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http://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46, 50, 54, 70
- 간증, 62
- 개인적인 가치, 7, 12
- 개종, 26, 44
- 경건, 76
- 교회 역사, 26
- 계약전서, 8
- 구원의 계획, 32, 37, 39, 70
- 모범, 22
- 물론경, 67

- 복지, 12, 36
- 봉사, 12, 36, 38, 50
- 부활절, 10, 16
- 비통, 37, 39
- 선교 사업, 26, 62
- 선지자, 8, 22
- 성약, 68
- 성전, 26, 44
- 소망, 80
- 속죄, 7, 10, 16, 32, 7

- 신권, 46, 50, 53, 54, 56, 60
- 언어, 40
- 여성들, 46
- 연차 대회, 4
- 예수 그리스도, 4, 7, 10, 16, 76
- 정속함, 40
- 토마스 에스 몬슨, 22
- 통찰력, 64
- 하워드 더블유 헌터, 8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단단히 고정시킨 닻

**일** 마 전에 저는 멋진 배를 타고 미국 알래스카에서 무척이나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항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윈시 그대로인 외딴 만에 하룻밤 동안 정박할 준비를 하면서, 선장은 조류의 흐름과 수심, 위험한 장애물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며 장소와 주변 환경을 신중히 살폈습니다. 주위 여건에 만족한 선장은 닻을 내려 배를 안전하고 단단하게 정박시켰습니다. 그 덕에 승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장관을 닻을 잃고 바라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해안선을 바라보는데,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배가 가벼운 바람과 물밑 조류로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배는 닻줄의 길이와 닻의 힘이 닿는 한도 안에서 단단하고 안정감있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장은 폭풍우가 몰려올 때만을 기다리며 닻을 그대로 배에 고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배가 서서히 표류하다 위험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조치로서 닻을 내려 배를 고정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하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비유로 쓰지 않는다면 나는 비행기를 몰았던 적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야.'

## 왜 우리는 닻이 필요할까요?

닻을 두는 목적은 배를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고정시키거나 악천후 때에 배를 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닻만 있다고 해서 이 중요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닻이 튼튼하고 믿을 만해야 하며,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가족 또한 닻이 필요합니다.

역경이 어마어마한 폭풍우로 닥쳐와 우리를 항로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암초에 내던지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바람이 온화하고 바다가 잔잔하여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일 때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표류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미미하여 느끼지 못할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 복음은 우리의 닻입니다

닻은 단단하고 견고하며,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에 더하여 닻은 적대 세력의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토대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마련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대속하여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만물에는 표류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복음 진리라는 기반에 닻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닻을 교만의 모래 위에 살짝 내려놓거나 우리가 지닌 확신의 표면에 겨우 닿는 정도로만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경전 및 영의 속삭임과 합세하여 영원한 가치와 원리의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기반을 형성하므로, 우리는 닻을 그 기반에 고정시켜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선지자 힐라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 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힐라멘서 5:12)

### 단단히 고정시킨 닻의 가치

인생은 우리의 닻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표류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닻을 구속주이신 반석 안에 올바르게 둔다면, 아무리 바람이 세고, 조류가 빠르고, 파고가 높더라도 견뎌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닻을 올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른 때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현재로는 복음의 닻과 구속주의 반석이 우리를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런 닻이 지켜 준다면 우리는 위험과 불행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 변해가는 인생의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장관을 만끽할 대단히 즐거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우며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람과 폭풍우, 거센 조류에

미혹되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위험 속으로 흘러들 수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복음 메시지와 그 성스러운 권능에 의지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4월 연차 대회와 말씀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메시지들을 단단히 고정시킨 닻으로 삼아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악** 속의 땅으로 항해해 간 리하이 가족에게 닻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토론해 본다.(니파이전서 18장 참조) 형들이 니파이를 묵자 리야호나가 작동을 멈추고, 배가 격렬한 폭풍우에 밀려났던 니파이전서 18장 11~15절을 언급해도 좋다. 복음 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또한 니파이전서 18장 21~22절을 들어 구주께 돌이킴으로써 어떻게 안전을 찾을 수 있는지 토론해도 좋다.

## 연차 대회와 나

사라 덕스



**연**차 대회 주말이 길고도 지루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연차 대회를 좋아하고 기대하게 되었다. 연차 대회 주말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월요일을 맞아 일상생활로 이어지면서 이런 느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쉽다. 다음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내가 연차 대회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계속해서 얻어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차 대회를 맞을 준비로 질문들을 작성한 후 대회 중에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기록을 해 둔다. 연차 대회가 끝난 후에는 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과 음악을 받아서 MP3플레이어에 넣어 두었다가 일상생활 중에 말씀이나 찬송가를 들을 수 있다. 나는 또한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리아호나*에 강조 표시를 하고 여백에 기록을 하기도 한다. 다음 연차 대회가 열릴 때쯤이면 내 잡지는 너덜너덜할 정도가 된다. 우리 가족은 때때로 가정의 밤에서 메시지를 함께 공부한다.

대회에서 느낀 영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메시지에서 배우려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큰 축복을 받았다. 연차 대회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어려울 때에 많은 힘과 인도를 받았으며, 이런 메시지들이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나는 안다.

글쓴이는 캐나다 토론토에 산다.

## 어린이

### 여러분의 닷을 고정시키십시오

**복**음에 닷을 내린 채 머물러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소년이 들고 있는 밧줄과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닷을 고정하기에 안전한 것이라 말씀하신 항목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삶과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http://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 신앙, 가족, 구제

###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신약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했으며, 그분의 성역과 기적, 존엄하심을 증거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

예수 그리스도라 불릴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요한복음 4:6~30 참조)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구주이자 구속주

다음은 구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 측면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십** 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의 하나는 Redeemer[리디머], 즉 구속주입니다.”라고 말씀했다. “Redeem[리딤], 즉 상환이라는 단어는 채무나 빚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Redeem은 또한 구속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몸값을 대신 치러서 그 사람을 구하거나 자유롭게 놓아 주는 것을 뜻합니다. …… 이런 각각의 의미는 ‘희생을 치름으로써 죄인을 죄와 형벌로부터 구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사전상의 의미 외에도, 그분이 성취하신 위대한 대속의 다른 측면을 보여 줍니다.”<sup>1</sup>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린다 케이 버튼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독생자이자 완벽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와 심적 고통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위해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 시련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월을 겪은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 된 20달러짜리 지폐와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럽고 해지고 흠집이 났죠. 하지만 …… 제게는 여전히 20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은 자신이 ……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그녀 한 사람을 위해 속죄하게 하실 만큼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자매는 이 여성이 아는 것 즉,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임을 알아야 합니다.”<sup>2</sup>

### 성구에서

니파이후서 2:6; 힐라맨서 5:11~12; 모세서 1:39

주

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구속”,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09쪽.
2. 린다 케이 버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마음에 새겼는가?”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14쪽.

###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나타내 보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 우리 생활에서 구주의 속죄 희생에 담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모세

“모세는 너무나도 위대했기에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도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던 이 고대 지도자와 같은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다.”<sup>1</sup> -십이사도 정원희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르

나는 내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이 속박에 놓여 있을 때에 애굽에서 태어났다. 이스라엘인 노예의 수가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는 이스라엘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내가 태어나자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려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바구니에 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바로의 딸이 나를 발견하여 아들로 키웠다.<sup>2</sup>

어른이 된 나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양치기이자 제사장인 이드로의 마음에 들어 그의 딸 심보라와 결혼했다. 나는 장인 이드로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sup>3</sup>

어느 날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주님이 떨기나무 불꽃 안에 나타나시어 나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 내라고 명하셨다.<sup>4</sup>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주님의 백성을 풀어 주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오히려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켰다. 주님이 애굽인에게 잇따라 재앙을 보냈는데도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풀어 주지 않았다. 마지막 재앙으로 주님께서서는 멸망의 천사를

보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멸망의 천사로부터 보호되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이 기적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식으로서 유월절을 제정하셨다.<sup>5</sup>

바로는 이 마지막 재앙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주었다. 하지만 바로는 후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군대를 보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했다. 주님은 내게 홍해를 가를 힘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마른 땅 위로 달아나도록 도우셨고, 그 후 바닷물이 뒤따라온 바로의 군대를 덮쳤다.<sup>6</sup>

그런 후 주님은 광야를



갈대 상자 속의 모세. © PROVIDENCE COLLECTION; 홍해를 가르는 모세, 로버트 더 바렛; 모세의 돌판, 제리 하스틴; 아론에게 상역을 베풀도록 부름을 주는 모세, 해리 앤더슨; 모세의 낚싯, 주디스 에이 메이



지나는 동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물과 만나,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다.<sup>7</sup>

나는 시내 산에 올라 40일을 머물렀으며 주님께 십계명을 받았다. 산에서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나는 율법이 담긴 판을 깨뜨려 버리고 산으로 돌아갔다. 주님은

그보다 낮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 이름을 따서 모세 율법이라

불린다.<sup>8</sup>

주님은 광야에서 내게 성막, 곧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우리는 어딜 가나 성막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운반했다. 백성은 성막 안에서 의식을 받고 나는 주님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 대면하여”<sup>9</sup> 이야기했다. 주님은 또한 성막 안에서 가장 성스러운 구역인 지성소에 두었던 성물인 언약궤를 만드는 법을 보여 주셨다.<sup>10</sup>

주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셨을 때, 나는 명을 받아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뱀에 물린 자 모두가 그것을 보고 고침을 받게 했다. 그러나 백성은 교만했고 그 치유 방법은

단순했던 탓에, 많은 사람이 뱀뱀을 쳐다보지 않아 죽고 말았다.<sup>11</sup>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후에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셨다.<sup>12</sup> 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의 취하심을 입[어]” 주님께 올리어졌다.<sup>13</sup> ■

주

1.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515; 또한 신명기 18:15~19 참조.
2. 출애굽기 1장; 2:1~10 참조.
3. 출애굽기 2:11~22; 교리와 성약 84:6 참조.
4. 출애굽기 3장; 4:1~17 참조.
5. 출애굽기 5~12장; 에스겔 45:21 참조.
6. 출애굽기 14장 참조.
7. 출애굽기 13:21~22; 15:22~27; 16장; 17:1~7 참조.
8. 출애굽기 24:18; 31:18; 32장; 34장 참조.
9. 출애굽기 33:11.
10. 출애굽기 25~29; 40:21 참조.
11. 민수기 21:6~9; 니파이전서 17:41; 앨마서 33:19~20 참조.
12. 민수기 14:33~34 참조.
13. 앨마서 45:19.

## 모세에 관한 사실

**모세의 저술:** 모세는 값진 진주의 모세서 외에도 성경의 처음 다섯 책,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이다.

**전세에서의 역할:** 경륜의 시대를 감리하도록 택함받음(아브라함서 3:22~23 참조)

**현세에서의 역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냄,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음(출애굽기 12장; 20장 참조).

**사후의 역할:** 변형의 산에 나타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신권 열쇠를 줌(경전 안내서, “변형,” scriptures.lds.org 참조), 1836년 4월 3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를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해 줌(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 부활절까지 7일

**가** 족이 함께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한 일에 관해 배울 수 있다. 부활절 전 일요일에 시작한다. 날마다 경전을 읽거나 활동을 하거나 노래(또는 그 주제에 관한 다른 노래)를 부른다. 그런 다음 경전 이야기에 맞는 예수님의 그림을 잘라 빈 칸에 붙인다. 칸이 모두 채워지면 부활절이 될 것이다! ■



**첫째 날**

**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지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 누가복음 2:4~7
- “아들 보내셨네”(어린이 노래책, 20~21쪽)

**둘째 날**

**2** 예수님도 한때는 어린이셨다. 우리도 그분처럼 착하고 친절할 사람이 될 수 있다.

- 누가복음 2:40, 52
- “주님도 한때 우리처럼”(어린이 노래책, 34쪽)

**셋째 날**

**3**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라는 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 마태복음 3:13~17
- “When Jesus Christ Was Baptized”(Children’s Songbook, 102)

**넷째 날**

**4**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며, 폭풍을 멈추게 하는 일과 같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 마가복음 4:36~39
-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어린이 노래책, 36쪽)



## 다섯째 날

**5**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분을 기억하라고 지시하셨다. 우리도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구주를 기억할 수 있다.

- 누가복음 22:19~20
- 이번 일요일 성찬식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 여섯째 날

**6**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상에 오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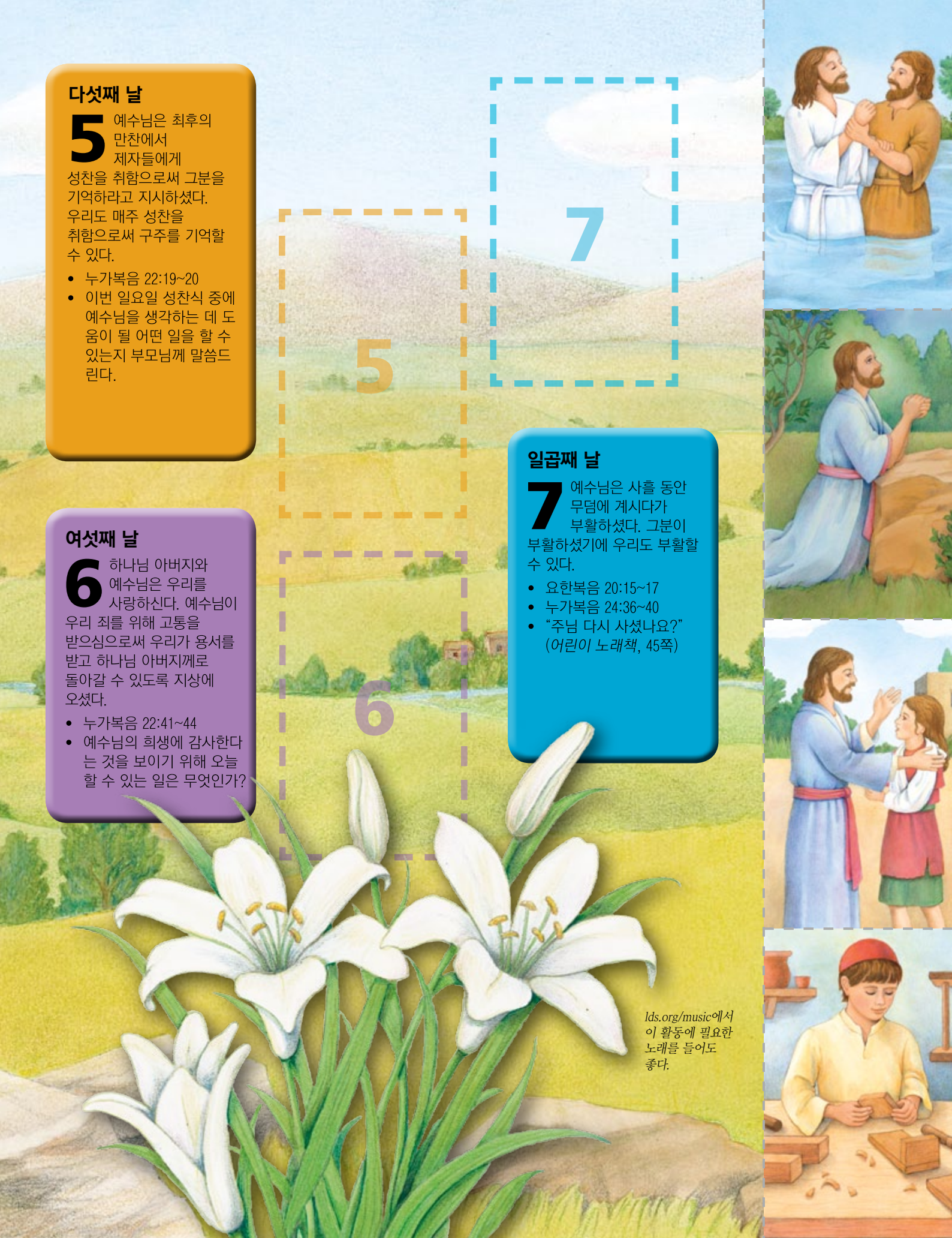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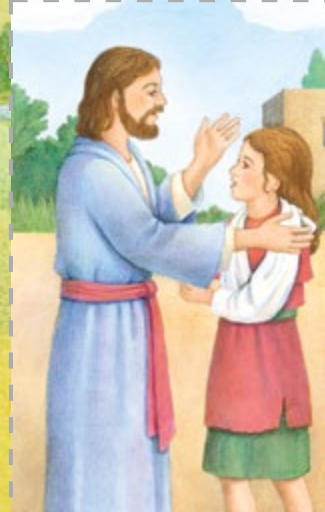
- 누가복음 22:41~44
-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일곱째 날

**7**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 요한복음 20:15~17
- 누가복음 24:36~40
- “주님 다시 사셨나요?” (어린이 노래책, 45쪽)

lds.org/music에서 이 활동에 필요한 노래를 들어도 좋다.









# 우리는 주님의 손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찾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닐 케이 뉴얼  
복지 서비스

**대** 공황 초기에 솔트레이크밸리의 여섯 스테이크 회장들은 의기투합하여 수많은 교회 회원을 휩쓸 조짐을 보이던, 암울해져 가는 빈곤과 기아의 먹구름에 대처하고자 힘을 모았다.<sup>1</sup> 경제 위기가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유타가 혹독한 타격을 입었다.<sup>2</sup>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물론 금식 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수요가 끊이지 않아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지경이었다. 1900년대 초, 감리 감독단의 지휘 하에 데저렛 취업 소개소(Deseret Employment Bureau)가 설립되었지만, 것처럼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 신권 지도자 여섯 명은 스테이크 내 회원들을 돕기 위해서는 지체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들은 먼저 사람들을 일하러 보냈다. 사람들을 조직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밭으로 보냈고, 이를 고맙게 여긴 농부들은 노동의 대가로 일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후하게 주었다. 그리고 남은 양식은 창고로 보내 굶주린 다른 이들에게 전했다. 기부가 늘어나자 성도들은 식품 보존을 위해 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일은 현대 복지 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

80년이 지난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도 세계 도처에서 똑같은 결의를 다지며 성도들을 보살피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201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주위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누군가 멀리서 백기사처럼 나타나 도움을 주기만을 바랍니다. 때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할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웃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빼앗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봉사할 기회를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기다리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모든 문제를 전문가들이 해결해 주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세워진 어느 나라에서나 신권과 신권 조직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sup>3</sup>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성신의 영감을 받아 행동으로 옮기라는 이 부름에 응하여,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이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말씀했듯 “[그들] 스스로 해법을 찾고” 있다.<sup>4</sup>

## 에콰도르

에콰도르 과야킬의 조니 모란트 감독은 와드 회원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최소한의 생필품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가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와드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에 이 문제를 주님께 고했다.

지역 내에는 취업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감독은 자매들 열한 명을 모아 함께 일을 시작하며, 소기업 창업의 기회를 모색해 보자고 독려했다. 이들 자매들은 질 좋으면서도 값싼 가정용 청소용품이라면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물품을 만들면 지역 주민들에게 팔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물건 만드는 법을 어떻게 배운단 말인가?

바로 그때 모란트 감독은 와드 내에 전에 약제사로 일했으나 실직 중인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한 자매들이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묻자, 그 자매는 흔쾌히 안전하면서도 질 좋은 청소용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자매들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각 자매가 담당할 지역을 나누고,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선정하고, 포장과 상표를 고안했다.

몇 달 내에 그들은 고객층을 확보했고 가난을 덜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보탬이 될 충분한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현지의 한 제약회사 부장들이 이 사업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실직 중인 약제사에게 큰 흥미를 보였다. 그들은 결국 그 자매와 면접 후에 자기들 회사의 제조 책임자로 고용했다.

## 러시아

러시아 모스크바 레치노이 와드에서 와드 역사가로 봉사했던 갈리나 곤차로바는 병원에서 미끄러져 양팔이 모두 부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양팔에 석고 붕대를 하는 바람에 스스로 먹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었으며, 머리로 빚지 못하고 심지어 전화조차 받지 못했다.

와드 회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대처했다. 신권 지도자들은 축복을 주었고,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더불어 이 선한 자매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 사항을 돌볼 시간 계획을

세웠다.

와드 선교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네치포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연차 대회에서 손이 없는 그리스도 동상에 관해 들었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sup>5</sup> 누군가가 동상 발판에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고 적힌 풋말을 세웠었죠. 이 선한



갈리나 곤차로바가 미끄러져 팔이 부러진 후,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그녀의 손이 되어 봉사했다.

자매님이 움썩달싹하지 못한 몇 주 동안 레치노이 와드 회원들은 그 이야기에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그녀의 손이 되었습니다.”

## 필리핀

2011년, 열대 태풍 와시가 필리핀에 상륙하여 대홍수와 강풍으로 그 지역을 휩쓸었다. 가옥 41,000채가량이 파손되었고 1,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홍수가 있기 전에 필리핀 카가얀데오로 스테이크의 맥스 사베드라 회장은 스테이크 비상 대응 팀을 만들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수색과 구조는 물론 응급 처치, 식품과 음료수, 의류 제공에 이르는 여러 임무를 수행할 위원회들을 조직했다.

범람한 물이 수위가 낮아져 안전해지자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출동했다. 그들은 각 회원의 안전 여부를 파악했고 피해 정도를 산정했다. 한 회원은 고무 보트를 제공하여 오토가도 못하는 회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게 했다. 음식과 의복, 모포, 그리고 임시로 머물 장소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대피소로 쓰도록 집회소를 개방했다. 깨끗한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터라 사베드라 회장은 소방차를 보유한 현지 업체와 접촉하여 집회소 피난 센터로 맑은 물을 실어 나르게 했다. 전문적인 의료 경험이 있는 회원들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담당했다.

교회 회원들의 소재가 모두 파악되자 사베드라 회장과 그의 팀은 도시 내 다른 피난 센터를 방문하여 돕겠다고 제의했다. 그들은 식품 및 기타 보급품을 가져갔으며 회원 중 상당수가 자기 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지나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했다. 비가 멈추고 물이 빠지자 세 스테이크에서 모인 몰몬 원조대 자원봉사자들이 보급품을 분배하고 청소 작업에 착수했다.

## 브라질

브라질 세치라고아스 시내에는 약물 남용으로 삶이 파탄난 장애 여성을 위한 쉼터가 있는데, 이 여성들은 날마다 생존을 위해 허덕였다. 그들에게는 작은 오븐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빵을 30덩이가량을 구웠다. 이 여성들은 현지의 한 인도주의 단체로부터 얼마간의 지원을 받았지만, 자급자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이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게 된 브라질 세치라고아스 스테이크의 교회 지도자들은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 여성들과 필요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빵을 더 만들 수만 있다면 좀 더 먹는 상황이 나아질 뿐 아니라, 어쩌면 일부는 팔아서 생계에 절실히 필요한 돈을 얼마라도 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현지 헌병대 및 현지의 한 학교와 힘을 모아 이 여성들의 형편을 개선시키기로 했다. 교회의 인도주의적 기금과 교회 및 지역 사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 여성들이 매일 빵 300덩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새 제빵소를 만들 수 있었으며, 거기서 번 수익금으로 제빵소

여성들은 쉼터의 여성 한 사람을 최초로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도 있었다.

## 복지 사업

주위 사람들의 크나큰 어려움을 보고 등을 돌리지 않았던 수십 년 전의 영감 어린 교회 지도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그들 나름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의 방법은 강을 건너기 위해 강가에 앉아서 물이 마르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함께 달려들어 소매를 건어붙이고 일하여 다리를 세우거나 배를 만들어 앞에 놓인 도전이라는 강물을 건너는 것입니다.”<sup>6</sup>

궁핍한 사람들을 찾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시던 때에 몸소 하셨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일은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 목록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리의 중심이자 우리 종교의 본질입니다.”<sup>7</sup> ■

## 주

1. 이틀 스테이크 회장 중 네 사람, 즉 휴 비 브라운, 해롤드 비 리, 헨리 디 모일, 매리언 지 롬니는 후에 사도로 부름 받았으며, 또한 교회의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다. 해롤드 비 리는 제11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2. 1930년, 유타는 미 합중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Garth L. Mangum and Bruce D. Blumell, *The Mormons' War on Poverty: A History of LDS Welfare 1830-1990* (1993), 95 참조.
3. 데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주님의 방법으로 베풀”,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54쪽.
4. 데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주님의 방법으로 베풀”, 55쪽.
5. 데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너희가 곧 내손이니라”, *리야호나*, 2010년 5월호, 68쪽 참조.
6. 데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주님의 방법으로 베풀”, 54~55쪽.
7. 데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주님의 방법으로 베풀”, 55~56쪽.



**제** 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현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이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또한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로서 그분이 맡으신 사명에 대해 증거할 책임이 있다.

다음 인용문들은 백함받아 임명된 이들이 전하는 구주의 속죄, 부활, 구주의 실재성에 관한 간증을 담고 있다.



# 특별한 증인들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의  
간절함으로, 저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소리 높여 간증드리고 선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은 얼마나 따뜻한 기쁨을 전해 주니까. “내 구주 살아 계시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내 구주 살아 계시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25쪽.**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마치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있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어느 날 아침에 팔마이라의 숲에서 찬란한 빛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듯이 분명하게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

부활하신 구주, 우리 구속주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내게로 오라”,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25쪽.**



**속죄와 구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는

구속의 계획에서 핵심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구속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속죄로 인해,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은 육체적인 죽음에서 조건 없이 구속되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한다는 조건 하에 자신의 죄로부터 구속될 것입니다. …… 이 사실을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 간증드립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9, 21쪽.**



###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그분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절정의 시기에 태어나서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시험받으셨으며,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삼 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살과 뼈의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87쪽.



### 인간 가족을 위한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심이 되시며,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주어진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육체적 사망의 장애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영은 육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삼 일 만에 그분의 영과 육신은 영원히 결합되어 다시는 분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엘 톰 페리 장로, “구원의 계획”,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1쪽.



### 인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

“[구주의] 속죄는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분은 그곳에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누가복음 22:44 참조) 속죄는 골고다(또는 갈보리)에서도 계속되었으며, 그분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해골의 곳”을 뜻하는 골고다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마가복음 15:22; 마태복음 27:33; 또한 제3니파이 27:14 참조) 이 무한한 속죄에 따라 인류는 무한한 죽음에서 풀려났습니다.(니파이후서 9:7 참조) 구주께서 속죄하신 결과, 온 인류가 실제로 부활하게 되었으며, 모두에게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인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앞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리아호나, 2011년 12월호, 22쪽.



### 죄에 대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희생을 치르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흠 없는 순결한 어린 양, 지극히 선하신 분이 온 세상의 죄라는 극악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의 계획 중심에 있습니다. ……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 희생으로 불멸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이를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희생”,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9, 22쪽.





**구주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게 주어진 지상에서의 사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서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중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로서의 본능을 참으셨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그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로 한 예임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

온 인류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제 간증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이 교회의 일들을 인도하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속죄와 한 영혼의 가치”,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5, 86쪽.



**우리의 희망이며, 중보자이며, 구속주**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간증을 강화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확증을 주셔서 그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서 선을 위한 완전한 힘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시기에 여러분을 지탱하여 이 불확실한 시대에 평안과 확신을 주는 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도록 권세를 부여받은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고, 부활하셨으며 완전한 사랑을 지닌 영화로운 분이라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며, 중보자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강한 간증의 힘”,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03쪽.



**쓴 잔을 마다하지 않으심**

“겻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주인 구속주께서는 속죄의 쓴 잔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9:16-19] 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마침내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계속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주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굳게 서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제3니파이 11:7]라고 선언하셨습니다.

……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거룩한 곳에 굳게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1쪽.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자녀**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유일하게 완전한 자녀이시라는 것과, 완전하지 못한 나머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의 뜻에 따라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 주셨음을 압니다. 저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알며,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모두 다시 살 것임을 압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5쪽.



**저는 구주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무궁한 희생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에 대해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구속 권능과 그분의 가능하게 하는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권능은 실존하며 우리 각자가 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증합니다. 진실로 이 필멸의 여정을 헤쳐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힘을 입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9쪽.



**그리스도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몸소 짊어지시고 ‘사탄[이] …… 공포[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613쪽에 직면하셨습니다. 부당한 재판과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과정은 부활절 일요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써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주이자 구속주로서 자신이 맡은 신성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과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행복을 얻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쿠엔틴 엘 쿡 장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83~84, 86쪽.



**구주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구주께서 겻세마네에서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위의 고통은 공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이에게 자비를 보이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속죄는 또한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겪는 고통을 치유하고 보상하여, 공의가 우리에게 진 빛을 झा아 줍니다. ‘이는 보라, 그가 만인의 고통, 참으로 아담의 가족에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이라.’(니파이후서 9:21; 또한 엘마서 7:11~12 참조)

…… 궁극적인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구속주임을 간증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구속”,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10, 112쪽.



**부활과 생명**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 또 장차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

주님의 다음 말씀이 수 세기를 걸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거룩한 사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엘 앤더슨 장로, “내게 오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0쪽.





## 질의응답

### 부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생이 지나면 우리는 …… 영화롭게 된 육신을 갖게 되어, 모든 병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남자나 여자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부활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후기

성도도 ……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와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승영할 가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 Conference Report, Oct. 1900, 4.







# 선지자를 따르라

**몇** 년 전, 몬슨 회장님은 연차 대회 직전에 한 가지 훌륭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세계 각지의 지역 회장단을 포함한 모든 총관리 역원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모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임 시간이 가까워지자, 몬슨 회장님을 제외한 모두가 참석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임 시작 몇 분 전부터 환담을 멈추고 경건히 자리에 앉아 전주 음악을 들으며 선지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가 되고, 또 지나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것은 아닌지 보려고 누군가가 옆 문으로 걸어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몬슨 회장님이 곧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윽고 약 15분 후에 몬슨 회장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을 맞았습니다. 그분을 뵈게 되어 즐거웠고 또 건강해 보이셔서 기뻐했습니다. 늦으신 데에 뚜렷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니다.

몬슨 회장님은 곧바로 연단으로 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는 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아 겸허해졌으며, 그 말씀은 제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모임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교회의 고위 지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몬슨 회장님은 우리 모두에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자신을 필요로

몬슨 회장님을 따르고 그분처럼 되려고 더욱 힘쓴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충실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는 아내를 돌보느라 시간을 내셨던 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날 이야기한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아내가 저를 필요로 했다”는 그 말씀만은 기억합니다.

## 선지자의 본을 따르시다

저는 몬슨 회장님의 본을 따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1. 우리는 긍정적이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값진 진주에 자신이 “쾌활한 성격”(조셉 스미스-역사 1:28)을 지녔다고 기술했습니다. “쾌활한”이란 또한 몬슨 회장님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이고 행복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sup>1</sup>

어느 날 저는 제일회장단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청받았기에 회의실 밖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은 모든 성전 헌납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분은 정초식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제일회장단이 이미 모임을 하시는 중이고 조금 있으면 안으로 초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휘파람을 불며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보구나. 교회 회장 집무실 밖에서는 휘파람을 불며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말이지.’

잠시 후 휘파람을 부는 사람이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몬슨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행복하고, 긍정적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따뜻하게 인사하시며 “몇 분 내에 모임을 시작할 거라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전체의 무게를 양 어깨에 올려놓고도, 그분은 행복에 관한 본보기가 되시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 2. 우리는 어린이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어린이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선지자이신 몬슨 회장님도 어린이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히 성전 헌납식에서 그분이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범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어느 성전 헌납식에서나 몬슨 회장은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분은 정초식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좋아하시며 늘 어린이 몇 명을 초대하여 성전의 상징적 완공을 기리는

의미에서 머릿돌에 약간의 회반죽을 붓게 하십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 의식이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되게 해 주십니다. 늘 활짝 웃는 얼굴로 어린이들을 바라보시며, 다독이고 칭찬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인지 모릅니다.

이따금 어린이들과 손바닥을 마주치고, 귀를 쫓긋 세우기도 하시며,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하라고 격려하며 따스한 인사를 나누십니다.

몇 년 전, 몬슨 회장님은 생신 날 유타 오쿼르마운틴 성전을 헌납하셔야 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여 성전 현관을 향해 가는데, 청소년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날이 몬슨 회장님의 생일임을 아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회장을 향해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몬슨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함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노래 지휘를 하듯 양팔을 흔드셨습니다. 청소년들이 노래 마지막 부분에 “더욱 더 많이”라는 후렴구를 덧붙이자, 몬슨 회장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지요.”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몬슨 회장을 사랑하며, 그분도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 3.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영의 속삭임을 따르겠다는 결의를 이런 말로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인생에서의 가장 감미로운 경험은 영의 속삭임을 느끼고 그에 따라 행한 후 시간이 흘러 그 일이 누군가의 기도 또는 누군가의 필요 사항을 성취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께서 심부름시킬 일이 있으시면 이 톱 몬슨이 주님을 위해 심부름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sup>2</sup>

이것은 우리 각자가 따르고 싶어 해야 할 모범입니다.

## 4. 우리는 성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 건립자 중 한 분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2008년 2월에 교회 회장이 되신 후로 성전 건립이란 위대한 일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된 6년 동안 몬슨 회장은 33곳의 새로운 성전 건축을 발표하셨습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여 성전이 우리 삶과 가족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3</sup>

그런 후에 이 훌륭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어루만지고, 성전에 참석한다면, 우리 삶에는 우리 신앙이 반영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오고, 그 안에서 맺은 성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련을 견디고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sup>4</sup>

성전을 사랑하는 일에서 선지자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모범을 따르도록 합시다.

### 5. 우리도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사랑에 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서 훌륭한 본이 되십니다. 몬슨 회장의 모든 성역은 가정을 방문하고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예기치 않은 전화를 하여 위안과 격려를 하고, 격려와 칭찬, 감사의 편지를 보내며, 병원과 보육원을 방문하고 몹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 등으로 가득합니다.

몬슨 회장은 2012년에 주목할 만한 친절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름다운 유타 브리검시티 성전의 완공이 다가오자, 저는 제일회장단과 만나 성전 헌납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브리검시티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쪽으로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있으므로 몬슨 회장이 헌납을 위해 그곳으로 가시기는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리검시티는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의 고향입니다. 이 훌륭한 사도님은 십이사도로서 매우 오랫동안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고향에서 성전을 헌납하는 영예와 축복을 누리도록 해 드리고 싶기에 저는 물러나 있겠으며, 팩커 회장님께 브리검시티 성전을 헌납하도록 지명하겠습니다. 그날은 그분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헌납식 날은 팩커 회장님에게, 또한 역시 브리검시티에서 성장하신 팩커 자매님께 아주 멋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사도를 대하는 몬슨 회장의 친절하고 도량이 큰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친절하며, 주위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하셨듯이, 토마스 몬슨 회장은 선을 행하며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해 왔습니다. 이 일은 그분의 인생에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 선지자의 방식

몬슨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훌륭하고 영감 어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방법을 주목할 만하고 훌륭한 모범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한 가지 본을 주셨으며, 우리가 따르고자 힘써야 할 본보기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선지자의 모범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 후기에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며, 이끌고자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그의 모범을 따르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이 주님의 선지자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충실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

2013년 5월 5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말씀에서 발췌. 전문은 [lds.org/broadcasts](http://lds.org/broadcasts)에서 볼 수 있다.

### 주

1. “Messages of Inspiration from President Monson,” *Church News*, Sept. 2, 2012, 2.
2. “주님의 심부름을 행하며”(DVD, 2008).
3. 토마스 에스 몬슨, “성전 축복,” *리야호나*, 2010년 10월호, 19쪽.
4. Thomas S. Monson, *Be Your Best Self* (1979), 56; 강조체 추가.







# 필리핀

바다의  
섬들 위에  
감도는  
영적인 힘

5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교회는 “동양의  
진주”로 알려진  
필리핀에서 놀라운  
힘을 보여주며  
성장했다.

**미** 국에서 온 젊은 두 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우구스토 에이 림은 자신이 참되다고 생각해 왔던 원리가 확인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젊은 변호사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아우구스토는 고등학교 때와 대학 시절부터 이미 계시가 계속된다는 것과 같은 교리를 믿어 왔던 터였다.<sup>1</sup>

몇 달 뒤에 아우구스토는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고, 물몬경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하라는 과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모로나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러한 정신에 따라 진지하게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참된지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단 몇 줄을 읽자마자 간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sup>2</sup>

1964년 10월에 침례를 받은 아우구스토 림은 얼마 안 있어 침례를 받은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다. 1992년에 필리핀인으로서 최초로 총관리 역원 부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회에서 수십 년에 걸쳐 충실히 봉사해 온 림 형제는 “동양의 진주”에 거주하는 수십만 후기 성도의 신앙과 헌신을 되새겨 본다.

## 기름진 땅

지상에 오시기 550년 전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몬경의 선지자 니파이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과 …… 나의 말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니파이후서 29:7) 이 정선된 말씀을 읽은 많은 사람이 “바다의 섬들” 중 하나로 필리핀을 떠올릴 것이다.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는 필리핀 공화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남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7,1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도이다. 이 아름다운 열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활기차며 겸손하다. 하지만 이 나라는 지진이나 태풍, 화산 폭발, 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하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필리핀인들은 광범위한 빈곤이 되풀이되는 시련 속에서도 여러 차례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 상황을 견뎌 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필리핀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기름진 땅이다. 많은 필리핀인이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많이 구사하는데, 영어 역시 필리핀의 공식 언어이다. 스페인의 오랜 지배로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이 기독교도이며, 나머지는 상당수가 이슬람교도이다.

1898년에 발발한 미국 스페인 전쟁 중에 유타 출신인 후기 성도 군인 윌라드 콜과 조지 시먼이 처음으로 필리핀에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선교사로 성별되기도 했었다. 그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침례는 뒤따르지 않았다.



필리핀 독신 성인들은 복음 원리를 토대로 성공을 거두며 주님의 교회에서 굳건한 지도자가 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몇몇 후기 성도들이 진군하는 연합군에 속해 필리핀의 여러 섬을 지나기도 했다. 1944년과 1945년에는 다수의 군인이 여러 곳에서 교회 모임을 했으며, 정전 후에도 여러 후기 성도 병사와 군속이 필리핀에 계속 머물렀다. 그들 가운데에는 맥사인 테이트와 갓 개종한 회원이었던 제롬 호로위츠가 있었다. 두 사람은 아니세타 파하르도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데 일조했다. 호로위츠 형제는 폭격으로 파괴된 마닐라 지역에서 아니세타의 가옥 개축을 도우며 아니세타와 딸 루스에게 새로 찾은 자신의 신앙을 소개했다.

아니세타는 간증을 얻고 침례를 받으려 했지만, 당시 그 제도에는 영속적인 교회 단위 조직이 없었으므로 교회는 필리핀인의 침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니세타의 소망을 알게 된 십이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 리(1899~1973) 장로는 본부 군인 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아니세타의 침례를 승인했다. 아니세타 파하르도는 1946년 부활절 아침에 군인인 로렌 페르에게서 침례를 받았으며, 지금은 최초의 필리핀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선교 사업의 시작

후기 성도 군인들은 필리핀에서 더 공식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가 세워지기를 고대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 클라크 공군

기지와 수빅만 해군 기지까지 두 곳에 교회 그룹이 조직되었다. 1955년 8월 21일에는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필리핀을 헌납했다. 하지만 법적 규제 때문에 선교사들은 1961년에야 필리핀에 파견될 수 있었다.

1960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였던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장로가 며칠간 필리핀을 방문했다. “저는 전 세계 다른 여러 곳에서처럼 선교 사업이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sup>3</sup> 이듬해, 극동 남선교부 로버트 에스 테일러 회장 및 맥사인 테이트 그림과 같은 회원들과 교회 밖의 지지자들이 많은 준비와 서류 작업을 한 끝에 힝클리 장로가 돌아와 필리핀을 선교 사업을 위해 재헌납하게 된다.

1961년 4월 28일, 힝클리 장로는 마닐라 교외에서 몇몇 군인과 현지 거주 미국인, 그리고 필리핀인 회원인 데이빗 래그맨과 모임을 하며 “이 땅에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게 해 주시길”<sup>4</sup> 간구하는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참된 종이 한 그 말은 머지 않아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었다.

레이몬드 엘 굿슨, 해리 제이 머레이, 켄트 시 로, 네스터 오 르데스머까지, 최초의 선교사 네 명이 몇 주 뒤 마닐라에 도착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복음을 쉽사리 받아들였지요.”라고 로 장로는 말한다. “가장이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하면, 가족 전체가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sup>5</sup>

### 발전해 나가는 교회

선교 사업은 1967년에 필리핀 선교부가 조직될 정도로 발전했다. 그 해말, 선교부에는 3,193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631명은 그 해에 개종한 사람이었다. 1973년에 이르자 필리핀 교회는 회원 수가 근 13,000명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 1973년 5월 20일에는 아우구스토 에이 림을 회장으로 하는 필리핀 마닐라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1974년에는 선교부가 필리핀 마닐라 선교부와 필리핀 세부시티 선교부로 분리되었다.

1975년 8월,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이 마닐라를 방문하여 필리핀 최초의 지역 대회를 감리했다. 8월은 비바람이 거센 시기였기에 타지에서 마닐라까지 오는 여정은



무척 험난했다. 라오그시티에서 마닐라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성도들은 진창에 빠진 버스를 밀고, 되돌아가려는 운전기사에게 간청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또 다른 일단의 성도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사흘 동안이나 건디는 용기를 보였는데, 한 자매가 말한 것처럼 살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1980년에 김볼 회장은 다시 필리핀을 방문하여 지역 대회를 감리했으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짧게

Drive)로 변경되었다.

1982년 8월 25일에 열린 기공식에는 태풍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군도 각지에서 2천 명의 교회 회원들이 선박이나 기차, 버스 편으로 모여들었다. 곧이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1984년 8월에는 헌납 준비를 끝마쳤다.

27,000여 명에 이르는 회원과 비회원이 헌납 전에 성전을 둘러보았다. 불과 며칠 전에 이를 간격으로 필리핀을 할퀴고 지나간 태풍을 두 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으로 향했던 것이다. 먼 지방에서 온 성도들은 피로한 가운데서도

1898: 미국 스페인 전쟁 중 두 명의 후기 성도 군인이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파함



1944~1945: 제2차 세계 대전 중 더 많은 후기 성도 군인이 복음을 전파함

1946: 아니세타 파하르도가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은 최초의 필리핀인이 되다



1955: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필리핀을 헌납하다

내방하였다. 그 만남 덕분에, 1983년에 마침내 필리핀 지역 선교사 훈련원이 개설되었으며, 이듬해에는 필리핀 마닐라 성전을 헌납할 수 있었다. 1987년에는 마닐라에 본부를 둔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이 세워졌다.

1987년에는 물몬경 일부가 타갈로그어로 번역되었다. 이제 물몬경은 세부어를 비롯하여 몇 가지 필리핀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 성전의 축복

1980년 12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교회 부동산부 책임자를 마닐라로 보내어 적절한 성전 부지를 물색하게 했다. 그 책임자는 몇 곳을 고려하고 나서 케손시티에 있는 1.4헥타르 부지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마리키나밸리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많은 교회 회원이 비교적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요청이 승인되자, 그는 1981년 1월에 해당 토지를 매입했으며, 거리명도 교회의 요청으로 템플 드라이브(Temple

Highway)로 변경되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강물이 범람하여 다리들이 파손되어 마닐라로 오기까지 우회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말이다.

필리핀의 여러 저명 인사를 포함하여,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성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작가 셀소 카루논간은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창조주를 대면하는 듯한 거룩한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으며, 필리핀 경찰대 수석 목사인 비엔베니도 카스텔로 대령은 성전은 “천국과도 같은 환경이기에 천국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수녀 두 명은 성전이 “진정한 주님의 집”임을 느꼈다고 했으며, 필리핀 의회 의원 에바 에스트라다 칼로는 안내자들에게 “여러분이 이 나라에 더 많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sup>6</sup>

당시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힝클리 회장이 1984년 9월 25일 화요일에 초석을 놓는 정초식을 인도했으며, 해외 왕국실에서는 헌납 세션이 아홉 차례에 걸쳐 거행되었다. 태평양 지역 16개 스테이크 및 22개 지방부에서 온 6,500여 명의



성도들이 많은 세션에 참여했다.

마지막 헌납 순서가 끝난 뒤, 곧이어 1984년 9월 27일에는 파울로 브이 말릿 2세와 에드나 에이 야소나가 필리핀 마닐라 성전 최초로 성전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이 성전의 초대 회장인 더블유 가스 안드러스가 집행했다.

의식 봉사자들을 시작으로 많은 교회 회원이 줄지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성전

드는 뱃살만큼의 돈이 모였다. 레오니테스는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베르나르도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라며 아내를 다독였다. 그들은 1985년에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에 걸쳐 가족으로 인봉되었다. 그 가족이 치른 희생 하나 하나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비할 데 없는 기쁨,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를 성전에서 찾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1961: 필리핀이 선교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으며 최초의 선교사 네 명이 도착함

1967: 필리핀 선교부 조직



1973: 필리핀 마닐라 스테이크 조직

1974: 필리핀 선교부가 필리핀 마닐라 선교부와 필리핀 세부시티 선교부로 분리

1975: 첫 지역 대회가 마닐라에서 개최되다

1983: 선교사 훈련원이 마닐라에 개설됨



의식은 밤늦도록 계속되어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회원들은 성전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마닐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선박이나 버스 편으로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저하지 않고 결행한, 신앙과 결의에 찬 수많은 일화들이 있다.

제너럴산토스에 사는 베르나르도 오베도자와 레오니테스 오베도자에게는 멀리 떨어진 마닐라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부부는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상인처럼(마태복음 13:45~46 참조) 자녀와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는 데 필요한 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기로 했다. 집과 소유물 대부분을 팔자 딱 아홉 식구가 마닐라까지 가는 데

비상 시 대비에 관한 상호부조회 모임은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 사는 자매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베르나르도의 말처럼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장만해 주셨다. 마닐라에서 돌아오자 친절한 친지들이 거처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자녀들은 학업을 마쳤고, 마침내 이 가족은 새로운 거주지에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다.

2006년 4월 18일, 제일회장단은 필리핀 세부시티 성전 건축을 발표했다. 그 소식을 접한 교회 회원들은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 세부시티 종교 교육원 원장인 세자르 페레스 2세는 “주님께서는 다음 성전의 터로 세부시티를 택해 우리를

### 필리핀 교회 회원수의 성장



교회 회원 수:  
675,166명\*  
와드 및 지부:  
1,134개  
선교부: 17개  
성전: 2곳(이 밖에도  
세 번째 성전이  
건축 중임)  
가족 역사 센터:  
16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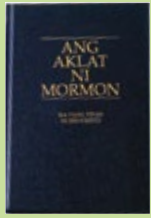
\* 2013년 9월 현재



1984: 필리핀 마닐라 성전 헌납



1987: 마닐라에 본부를 둔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이 세워짐



1987: 몰몬경 일부가 타갈로그어로 번역됨



2010: 필리핀 세부시티 성전 헌납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세부시티 성전을 헌납한 지 몇 달 후, 필리핀 후기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 번 기뻐할 일이 생겼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2010년 10월 2일 연차 대회 개회 말씀에서 판가시난에 필리핀 우르다네타 성전을 건축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필리핀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륜이 짧지만, 이 섬나라에서 교회는 전도가 유망하다. 그동안 이룩한 교회의 성장도 경이롭지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필리핀인으로서 두 번째로 총관리 역원 부름을 받은 마이클 존 유 테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업은 우리의 도움이 있든 없든 간에 앞으로 나아갈 것이므로 우리 [필리핀 후기 성도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sup>7</sup>

21세기에 이 회복된 교회는 참으로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더 많은 필리핀인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은 이 택함받은 바다의 섬들 위에 사는 백성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테 장로와 필리핀 성도들에게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주의 약속이”(니파이후서 10:21)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

주

1. 아우구스토 에이 림, 출처: 알 레니어 브릿스, “충실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참된 성도들: 필리핀의 개척자들”, 성도의 빛, 1998년 2월호, 45쪽.
2. Augusto Lim, Gelene Tobias, “Augusto Lim: The Man of Many Firsts”, countrywebsites.lds.org/ph/index.php/dateline-philippines/jubilee-2011.
3.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 (1996), 213-15 참조.
4. 알 레니어 브릿스, “충실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참된 성도들: 필리핀의 개척자들”, 성도의 빛, 1998년 2월호, 42쪽.
5. 제임스 닐 클락이 켄트 클라이드 로와 한 인터뷰, 2007년 9월 3일.
6. Francis M. Orquiola, “Temple Dedication Rewards Faith of Filipino Saints”, *Ensign*, Nov. 1984, 107.
7. Michael John U. Teh, “Scriptures and Spiritual Preparation” [Area Presidency Messages, May 2011]; lds.org.ph/index.php/literature.

# 구원의 계획을

활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라린 포터 건트  
교회 잡지

**우**리는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희미한 데서”(교리와 성약 1:30) 나아오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 모르는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몰론”에 대해 듣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상하고 혼란스럽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익숙하고도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 어느 쪽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에게 와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대답을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으로도 알려진 구원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삶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모든 질문에 구원의 계획에 담긴 진리로 대답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관해 경전 및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주신 몇 가지 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전세

창조

휘장

필멸



###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다.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 살았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사도행전 17:29]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필멸의 부모에게서 우리의 육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바울이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니라’[교리와 성약 88:15]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생은 바로 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히브리서 12:9]라고 했습니다.”<sup>1</sup>

###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몬슨 회장은 지상에서의 우리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현명한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전세에 관해 망각의 장막을 치심으로써 우리가 시험의 시간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해 보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얻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의지라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이라는 엄한 교사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쓴 것과 단 것을 구별하며,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sup>2</sup>

### 이생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인간 가족 모두에게 찾아온다. 그러나 몬슨 회장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욥기 14:14)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라고 말씀했다. “이 진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가르쳤으며, 거룩한 경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르침과 위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

끝까지  
견딤

침례  
성신의 은사



## 어디에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까?

1. 값진 진주의 모세서와 아브라함서에는 구원에 계획에 관한 가르침이 실려 있다.
2.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conference.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원의 계획, 행복의 계획, 속죄, 승영, 공의, 자비, 회개, 부활**과 같은 용어로 검색하면 된다.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3장에 나오는 “토론 2: 구원의 계획”을 참조한다.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 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앨마서 40:11~12]”<sup>3</sup>

우리는 부활한 후, 영광의 세 가지 등급, 곧 해와 같은 영광의 해의 왕국, 달과 같은 영광의 달의 왕국, 혹은 별과 같은 영광의 별의 왕국 중 하나로 가게 된다.(교리와 성약 76 참조)

###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사탄은 실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은 모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열렸던 천국 회의에 참석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계획의 일환으로 누군가 지상으로 내려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기를 바라셨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신 이[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다른 하나[사탄]도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첫째를 보내리라.

이에 둘째[사탄]가 성내어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날에 많은 자가 그를 따랐더라.”(아브라함서 3:27~28; 또한 교리와 성약 29:36~37; 모세서 4:1~4 참조)

###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힘이 있는가?

천국 회의 뒤에 삼 분의 일에 해당하는 영들이 사탄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여 그와 함께 쫓겨났다. 그들과 사탄은 육신이 없이 영으로 남아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sup>4</sup> 따라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물리칠 힘이 있다.

영의 세계

사망

부활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자녀의 뜻을 서로 소통하게 하는 행위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Bible Dictionary, “Prayer”) 우리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 할 때, 그 결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곧 기도이다.(아브라함서 3:25 참조)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은 그렇다, 아니다, 혹은 ‘아직 아니다’와 같은 형태로 올 수 있다. 시기가 중요하다.

**올바른 삶을 살고자 애쓰는데도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움은 구원 계획의 일부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난관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정화되며 향상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 우리의 시련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될”(교리와 성약 122:7) 것이다.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우리는 그 빛의 도움으로 “선악을 분별”(모로나이서 7:16)하게 된다. 그밖에도 성신은 평온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진리를 증거해 준다.(교리와 성약 8:2~3 참조)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배우는 동안 죄를 지을 것임을 아셨다.<sup>5</sup> 그렇지만 모든 죄에는 별이 따른다. 공의는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 속죄를 치르게 함으로써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게 하셨다.(앨마서 42장 참조) 달리 말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 의식을 받아 그리스도의 속죄에 다가간다면, 켄세마네에서의 수난과 골고다에서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모두 치르신 셈이 된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31~32 참조)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이라는 경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91쪽; 또한 아브라함서 3:22~26 참조.
2.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이라는 경주”, 91~92쪽; 또한 앨마서 34:32~34 참조.
3.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이라는 경주”, 93쪽; 또한 교리와 성약 76:59~111 참조.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1쪽.
5. 어린아이는 “그들이 ……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교리와 성약 29:46~47 참조) 죄를 지을 수 없다.

##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제** 일회장단 제2보좌 디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2011년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평안을 얻었다. 그분은 양증맞은 물망초 꽃에 관해 이야기하시며, 어떻게 그 꽃잎 다섯 개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셨다!

모임이 끝나자 딸 엘리사는 자그마한 음식 납품업을 하는 친구 제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시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지도자들로부터 후식을 준비하여 상호부조회 모임 뒤에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제시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금세 알았다고 했는데, 바로 250개의 컵케이크였다. 엘리사는 컵케이크를 스테이크 센터로 나르는 일을 돕겠다고 자원했다.

모임 당일이 되어 엘리사가 도우러 갔을 때, 제시는 울상을 짓고 있었다. 컵케이크는 준비되었지만, 제시가 그 사진을 친척에게 보냈을 때 케이크가 모임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제시는 자신감을 잃어 갔다. 제시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그 수수한 컵케이크보다는 뭔가 더 공들인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컵케이크를 다시 장식할 방법을 생각해 내려 정신 없이 서둘렀지만, 시간이 없었다. 제시와 엘리사는 컵케이크를 그대로 들고 갔다. 제시는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연단에 서실 때까지도 자기 때문에 자매들이 실망할 것으로 생각했다.

회장님이 그 조그마한 물망초 꽃에 관해 말씀하는 동안 파란색 작은 꽃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아주 소박한 꽃이었지만 꽃잎에 우아한 줄무늬가 있는 것이 무척 아름다웠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메시지는 모든 이의 가슴에 와 닿았다. 그분은 우리 주위에 활짝 핀 이국적인 꽃에 너무 현혹되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 다섯 가지를 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 주셨다.

폐회 기도가 끝나자 자매들이 활동실로 몰려왔다. 엘리사와 제시가 들어가 보니, 후식 탁자 앞에 둘러 선 자매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수수하게 흰 크림을 얹은 컵케이크에는 소박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우아한, 꽃잎 다섯 개가 달린 물망초 꽃이 한 송이씩 장식되어 있었다. ■

게일 애시크로프트, 미국 애리조나

주

1. 디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물망초”,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20쪽 참조.

**컵** 케이크는 준비되었지만, 제시가 그 사진을 친척에게 보냈을 때 케이크가 모임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 나에게 희망을 준 약속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우리는 아들 하나를 축복으로 얻었다. 방긋 웃는 아기 얼굴과 두 눈을 들여다 보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내게는 정말이지 완벽한 아이였다. 남편과 나는 그 귀한 선물에 대해 주님께 날마다 감사드렸다.

2009년 2월 19일, 나는 마지막 두 학기를 마치기 위해 복학하는 데 필요한 짐을 꾸렸다. 남편과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에 걸려 이튿날 이생을 마감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이었다. 와드 회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경진과 찬송가로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다. 그들의 연민 어린 애도가 고맙기는 했으나 아들을 잃은 슬픔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아이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 나는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를 읽으라는 영감을 받았다. 책을 드는 순간 “사망 때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말씀”이란 제목의 장이 펼쳐졌다.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고, 나는 조셉과 에머가 신혼 초에 겪은 비극적인 상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선지자가 두 살배기 여자 아이의 장례식에서 한 말씀에 이르렀을 때는 냉수가 머리 위로 쏟아져 슬픔이 가득찬 뇌리를 식혀 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남편을 불러 다음을 함께 읽었다. “저는 …… 자문해 보았습니다. 왜 유아와 무죄한 어린아이들이,

……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는가. ……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 현세의 악과 슬픔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데려가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았으며, 우리도 곧 다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갖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영생을 가질 것이며, 그들의 빛을 갠았기 때문입니다.”<sup>1</sup>

아름다운 그 말씀을 읽고 난 후, 우리의 가족 기도는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아들과 다시

**책**을 드는 순간 “사망 때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말씀”이란 제목의 장이 펼쳐졌다.

함께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에 대한 감사로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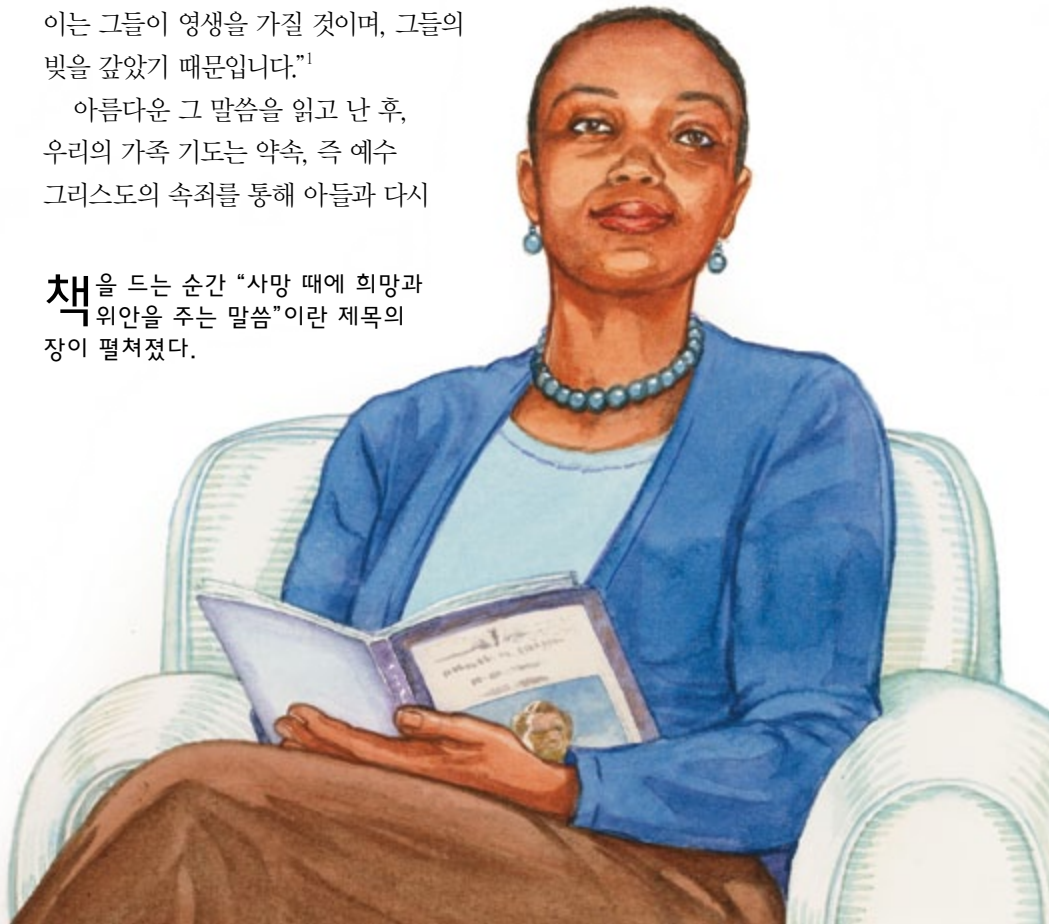
이제 우리에게는 떠나간 아들의 동생들인 귀여운 세 아이가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도록 이끌어 줄, 참되고 영원한 복음을 가르친다.

나는 사후의 생에 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 그 말씀이 휘장 양편에서 우리의 가족에게 가져다주는 소망과 화평, 기쁨과 행복에 영원토록 감사할 것이다. ■

줄리아나 페이헌,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76~177쪽.



## 나눌 것이 넉넉하게 있었다

**나**는 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늘 비상시 대비 문제를 염두에 둔다. 하지만 1992년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남 플로리다에서 그에 관한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중 하나로 꼽히는 허리케인 앤드류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아름다운 여름을 망쳐버렸다.

당시는 직장에서 하는 3개월 과정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잠시 해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낼 때였다. 허리케인 정보가 발령되었을 때 나는 정오까지 아파트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한 동료는 다른 동료들과 나를 위해 내륙 지역에 있는 호텔 객실을 예약해 주었다. 나는 창문에 못질을 하고 물건들을 챙겼다.

아내와 아이들이 일주일간 방문할 것을 대비해 여섯 식구가 쓸 물과 식량을

사전에 충분히 구입해 놓았던 터였다. 안전하게 머물 곳이 있고 몇 주간 버틸 식량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떠나기로 한 시각인 오전 10시 30분까지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기분이 참 좋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폭풍에도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칠 무렵,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이삼 분 후, 홀로된 80대 할머니 한 분이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네요.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할머니는 몹시 지쳐 보이었다. 도와드릴 게 없는지 여쭙자 정신이 없으신 듯,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디에 사시는지 여쭙 다음에 함께 할머니의

아파트로 걸어가서 상황을 보고, 할머니가 어떻게 하셔야 할지를 살폈다.

내가 우리 회사에 호텔 객실 여유분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일행과 같이 지내자고 권하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서둘러 아파트와 살림들을 단단히 단속했다. 나는 동료에게 할머니의 자동차를 몰고 호텔까지 가 달라고 부탁했다.

떠날 차비가 다 되었을 때, 또 다른 미망인 두 분이 도움을 요청해 왔다. 나는 그분들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피난처를 생각해 내게 했다. 동료 한 사람에게 가서 짐을 받으려 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할머니께서 도움을 청해 오셨다. 우리는 그분의 물건 중 파손 위험이 있는 것들을 잘 단속해 두고, 떠날 준비를 하시도록 도왔다.

그동안 다른 동료들도 섬에 사는 두 대학생에게 우리 일행과 함께 내륙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도록 권하고 있었다. 그 학생들은 간식거리 조금과 생수 1리터밖에 먹을 것이 없었다. 다행히 나에게 그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과도 나눌 만큼 식량이 충분히 있었다.

주님의 인도로 준비를 갖추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지. 그렇게 나는 불안한 시기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 걱정을 하는 대신 시간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보내게 되었다.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신권 지도자들의 권고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

브렌트 피셔, 미국 캘리포니아

**도**와드릴 게 없는지 여쭙자 할머니는 정신이 없으신 듯,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남**편이 자고 있는지 보려고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눈을 뜬 채 누워 있는 동안에도 방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난데없이 일어난 충격적인 사고로 12살 난 딸을 잃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다시 눈을 감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딸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아이를 잃은 아픔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동이 틀 때가 다가오자 갑자기 강렬한 열망이 일어났다. 곧 해가 뜰 것이다. 연분홍빛으로 물든 하늘이 마음속에 그려졌다. 딸은 분홍색을 좋아했다. 다시 한 번 딸아이를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분홍빛 일출 광경을 봐야만 할 것 같았다.

“여보, 해돋이 보러 가요.” 졸려 하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차도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늘이 밝아졌지만 낮게 드리운 구름 사이로 태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의연한 척하려 애쓰면서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뭔가가 더 있어야 했다. 필요한 것이 더 있었다.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그분이 계신 본향으로 데려가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소망쯤은 들어주실 수 있을 것이었다.

집으로 들어가려고 뒤로 돌아선 남편은 뒤에 펼쳐진 서쪽을 보게 되었다. 그가 소리쳤다. “여기 좀 봐요!”

나도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 등 뒤에는 황금빛으로 둘러싸인 구름이 은은한

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숨이 멎는 것만 같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처 상상해 보지 못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마치 딸에게 안겨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픈 내 마음을 아셨고, 또한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과 영원한 가족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보내신 것임을 나는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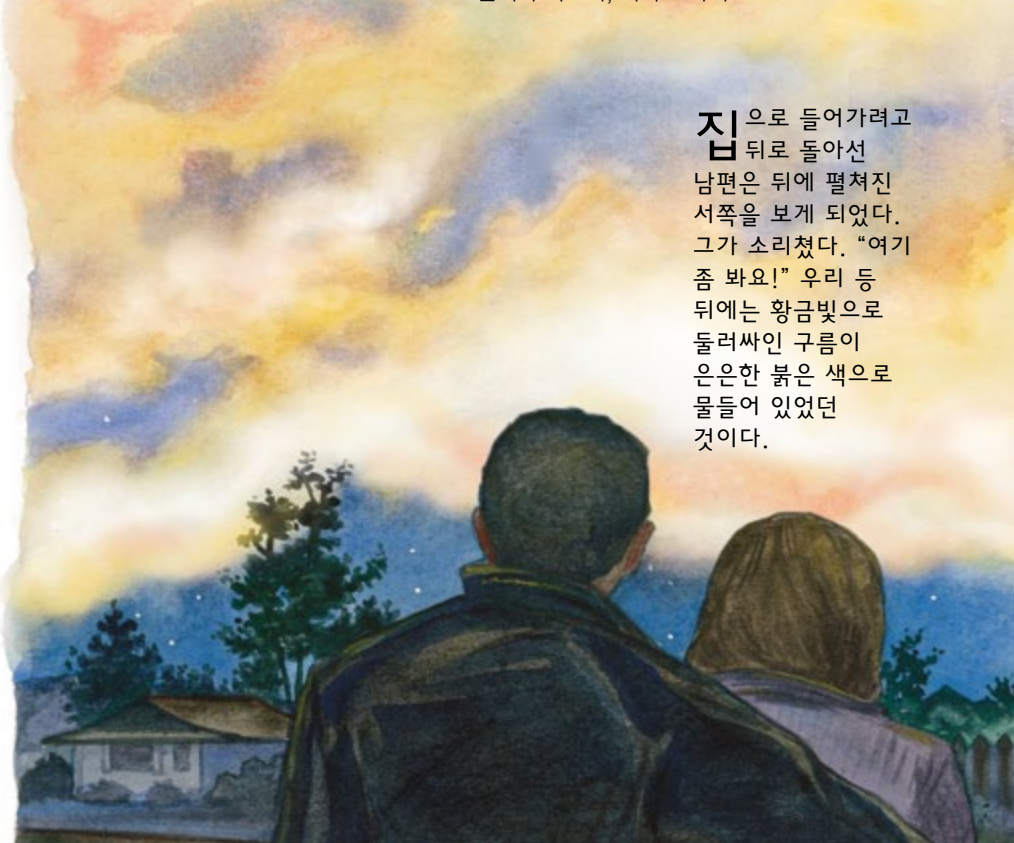
아름다운 그 순간과 그것이 가져다준 새로운 시각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본다. 서쪽에서 일출 광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나의 기적은 바로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다. 축복이나 기적들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온 탓에 그것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통에 실재하는 영광을 놓친

때는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주시지 않는 기적을 달라며 끈질기게 기도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딸의 장기 기증으로 네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기적과 가족간의 사랑, 와드의 단합이라는 기적, 또한 봉사에서 오는 기적을 목도할 수 있었다. 나는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해가 붉게 떠오를 때마다, 담홍색으로 물드는 해질녘마다, 분홍 꽃을 마주할 때마다 내 영혼에 강한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 또한 느꼈다.

나는 이제 해가 뜰 때 동쪽에 이어 곧바로 돌아서서 서쪽 하늘을 바라본다. 나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적과 축복이 늘 존재한다는 것과, 우리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태양이 늘 우리의 슬픔 위에 떠오른다는 것을 실감하며 웃음 짓는다. ■  
줄리아 와그너, 미국 오하이오

**집**으로 들어가려고 뒤로 돌아선 남편은 뒤에 펼쳐진 서쪽을 보게 되었다. 그가 소리쳤다. “여기 좀 봐요!” 우리 등 뒤에는 황금빛으로 둘러싸인 구름이 은은한 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언어와 행동, 용모  
면에서 단정하게  
생활하는 것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캐더린 벨슨과 하이디 맥콩키

**전** 세의 천국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겠다고 자원하시며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모세서 4:2)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범을 보여 주셨다.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으셨으며 대신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요한복음 12:44)라고 가르치며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셨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태도나 용모, 말씀이나 행동 면에서의 단정함(modesty: 단정함, 또는 겸손함이란 뜻-웁긴이)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본 기사에서는 구주를 따르고자 헌신하는 청년 독신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또한 외모에 드러나는 단정함에 대해 돌아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결심함으로써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의 행실이 인도를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이다.

#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빛을 발한다

단정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 신앙에 충실함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단정함이란 복장, 몸가짐, 언어 및 행동에서의 겸손하고 고상한 태도를 말한다. 여러분이 단정하다면, 지나치게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한다. 그 대신에, 여러분은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린도전서 6:20)도록 노력해야 한다.”<sup>1</sup>

구주께서 그러셨듯이 단정함을 드러내는 방법을 깨우칠 때, 우리의 생활에 영을 불러들이며,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교리와 성약 88:67)이라는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 다른 청년 독신들이 단정함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읽어 보면서, 내면의 결심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외면으로 단정함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빛을 키우는 방안을 숙고해 볼 수 있다.

### 언어와 행동 면에서 단정해진다

“여러분의 언행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깨끗하고, 긍정적이고, 고상한 언어와 행동,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나타낸다. 언행에서 단정해지려는 노력은 성신으로부터 오는 더 큰 인도와 위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다.”<sup>2</sup>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대리아 세르기브나 시비드카는 우리가 “거칠거나 부적절한 말 대신에 부드러운 음색으로 생각을 조용하게 표현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언어 면에서 단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단정한 언어는 험담이나 비웃음, 놀림이나





빈정댄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타인을 경시하거나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있는 신성을 인식하고 친절하게 대할 뿐이다.

우리의 말씨에서 신뢰를 향한 존중이 드러나야 한다. “저속한 언어와 세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그리고 불경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 그러한 언어와 행동의 불경은 성신의 조용한 속삭임을 받을 수

**“단정함이란 복장, 몸가짐, 언어 및 행동에서의 겸손하고 고상한 태도를 말한다. 여러분이 단정하다면, 지나치게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한다.”**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손상시킨다.”<sup>3</sup>

힘답이나 놀림과 같은 품위 없는 말씨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단정한 말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더 깊게 하며, 미국 유타에 사는 켈리 프루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는 능력을 키워 주며 또 우리의 단정한 언어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서 최선을 이끌어 낸다.”

단정한 말과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타에 사는 마이크 올슨은 이렇게 말한다. “단정한 언어와 행동은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 주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를 알아챈다. 타인의 마음을 고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어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 봉사와 친절의 행동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고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가 말보다 더 확고하다는 것을 나타내보인다. 언어와 행동 면에서 제자다운 모범을 보이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단정한 행동과 말씨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캐리 칼슨은 이렇게 말한다. “겸손하면서도 남의 주의를 끌려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가 기본 좋은 면이 있으며, 단정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쓰시는 강한 그릇이 됩니다.”

#### 단정한 복장과 몸차림을 한다

유타에 사는 폴 케이브는 이렇게 말한다. “단정한 [복장]은 육으로 난 사람 대신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여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 줍니다.” 우리는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하고, 겉모습보다는 품성이나 인격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옷 입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우리를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보고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브라질의 루이스 다 크루즈 2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발전하여 아버지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 까닭에 정숙하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선물과 또한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을 사람들과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sup>4</sup>

캐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단정치 못한 옷차림에는 우리의 몸을 품성과 인격을 갖춘 영에서 분리된, 육적인 대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단정한 차림을 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늘 부모님이 낳고 기르신, 거룩한 잠재력과 운명을 지닌 소중한 영이 담긴 그릇이 바로 제 몸이라는 걸 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몸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살핌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에 충실함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하는 것 이외에도, 극단적인 형태의 의복이나 외모 또는 머리 모양을 피해야 한다. 복장과 몸차림, 그리고 몸가짐에서 언제나 깔끔하고 청결해야 하며, 결코 단정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한다.”<sup>5</sup> 우리는 옷 입는 방식과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린다.

####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한다

단정함이라는 복음 표준을 따르고자 할 때, 편리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관성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결의를 나타낸다.

진정한 결의는 언제나 복음 원리에 뿌리를 둔다. 유타에 사는 앤서니 로버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단정함이란



곧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데, 자신이 이해하는 복음과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날마다 걷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개심하여 복음에 온 마음을 쏟으면,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겠다는 소망이 깊어지고 커진다.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이해한다**

꾸준하게 단정함을 유지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득권을 알고 이에 대해 감사하게 되며,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단정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라파엘라 페리니는 이렇게 설명한다. “단정할 때, 제 스스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딸과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축복이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단정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정의하게

하면 우리의 자긍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유타에 사는 줄리아나 오나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단정함이란 원리에 관해 간증을 얻기까지 저는 행복하지도 않았고 영적으로도 위험한 처지에 있었어요.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세상의 집착은 모질고 끈질겨서 세상의 방식으로 저 자신을 정의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도 해로웠어요. 제가 세상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신 저와 하나님의 관계로 저를 정의하자 인생이 더 쉽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구할 때, 인생에서 더 큰 기쁨과 단정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더 큰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단정한 생활을 한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의 갈리나 빅토르브나 사브추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곧 언어, 외모, 행실, 심지어 우리가 방문하는 곳에도 우리의 정숙함이 묻어납니다.” 단정한 삶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및 복음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진정한 단정함은 행동과 태도의 조합이다. 우리가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다른 하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온 생애에 걸친 헌신 없이 행동과 외모만 단정하게 한다면 단정한 삶을 살 때 따르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어려우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데도 자신이 정숙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sup>6</sup>

단정함이란 맥락에서, 우리 눈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단정하게 살기로 다짐했다는 뜻이다. 눈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외모와 행동도 단정함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눈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단정한 복장과 몸가짐에 영원한 원리라는 시각이 수반되어야 한다.

눈을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는 더 쉽게 시각을 그분께 맞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각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 두 눈은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며,

단정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생활 속에서 영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정숙함은 영을 지니기에 합당하게 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정숙하다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하며, 겸손할 때 우리는 성신을 우리와 함께하도록 불러옵니다.”<sup>7</sup> 성신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줄 때, 우리의 눈이 순전해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게 되며, 우리는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

캐서린 벨슨은 미국 유타에 살며 하이디 맥콩키는 미국 텔라웨어에 산다.

주  
 1.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53쪽.  
 2. 신앙에 충실함, 55쪽.  
 3. 신앙에 충실함, 55쪽.  
 4. 신앙에 충실함, 54쪽 참조.  
 5. 신앙에 충실함, 54쪽.  
 6. 린 지 로빈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참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03쪽.  
 7. 로버트 디 헤일즈, “정숙함: 주님에 대한 경건”, 리아호나, 2008년 8월호, 18쪽.

# 핀란드에서의

## 개종과 희생

멀리사 젠테노

**핀**란드 헬싱키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바다 요새 수어멘린나는 18세기에 침략자들에 맞서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세워졌다. 여섯 개 섬에 걸친 이 요새는 핀란드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 준다.

하지만 핀란드 회원들이 수도로 여행하여 방문한 곳은 다른 건물이었다. 핀란드 헬싱키 성전은 그들의 개종과 복음대로 생활하여 받는 보호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이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24세 청년 성인 니일로 쿠비넨에게 헬싱키까지 가는 열 시간에 걸친 기차 여행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축복을 위한 작은 희생에 지나지 않는다.

2006년 10월에 핀란드 헬싱키 성전이 헌납되기까지 니일로나 그의 와드 회원들은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이나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까지 가야 했었다. 그는 “여름 휴가 때 갔었는데, 보통 일주일이 걸렸지요.”라고 회고한다. 그 여정에서 버스 여행을 하고 야영을 했던 일은 아주 멋진 추억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본국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축복이다. “헬싱키 성전이 발표되었을 때 무척 기뻐요.” 니일로는 말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때의 헌납 기도가 가슴속에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이와 같은 성전 사랑 때문에 니일로는 친구들과 멀어졌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며 즐겁게 활동하지만 생활에서 영적인 것을 위한 시간은 거의 남겨 두지 않거든요.” 니일로는 늘 좋은 친구들을 두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가 배운 생활 방식 사이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 때문에 17세 때 니일로는 자신만의 간증을 구해야 했다. “저는 어디에 서서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주님의 축복,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가족의 인도로 교회에 대한 제 간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핀란드에서  
충실한 청년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한 청년이  
자신의 문화와 신앙에  
대해 들려준다.

베드나 장로는 개종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주님께로 개종할 때,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sup>1</sup> 헬싱키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들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니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한다. 아울러 그런 것은 니일로에게 전혀 희생이 되지 않는다.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께로 돌아왔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9쪽.



**니일로에 대해 더 알아보시다**

**핀란드인들은 대개 어떤 음식을 즐기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연어 수프와 짓이긴 감자를 곁들인 순록 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밀 빵도 많이 먹습니다.

**취미는 무엇이죠?**

스노우보드 타기와 영화 감상을 좋아하며, 그냥 바깥을 산책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또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해서 시간이 되면 일본어도 공부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데이트를 하죠?**

우리에게는 특별한 데이트 문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에게 이미 상당한 관심이 있을 때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이곳에서는 데이트가 누군가를 알고자 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충실한 청년 성인들이 있습니다. 청년 성인 회원들은 종종 먼 거리를 여행하여 청년 독신 성인 무도회에서 만났던 상대와 데이트를 합니다.

**핀란드 지역의 교회**

**숫자로 알아보기**

회원수 4,715명	인구 5,250,000명(2012년 1월 현재)
와드 15개	호수 187,888개
지부 15개	섬 179,584개
스테이크 2개	사우나 220만 개
선교부 1개	
성전 1곳, 2006년 10월 22일에 헌납됨.	

**간략한 정보**

수도: 헬싱키  
언어: 핀란드어(수오미)



# 주님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신권이 부여되는 계획에서,  
남성과 여성에게는 서로 다르지만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역할이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 권이 부여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동등한 가치가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강화하는 일에서 남녀 모두가 여성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는 상당한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성은 참으로 여러 면에서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교회의 충실한 여성들과 청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는 일을 되짚어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자녀가 궁극적인 잠재력을 발휘하게 할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에는 사람이 타락하여 한동안 그분에게서 떨어져 필멸의 존재로 태어나고 육신을 얻고

시험과 수련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대속할 구주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복음 의식과 신성한 성약을 통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온갖 위험과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필멸의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힘보다는 더 큰 힘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들의 힘에 기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성취할 힘, 그리고 그 여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매체와 수도 없이 많은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제가 만난 언론인 대다수가 이 주제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이 이등 시민이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터무니없는 억측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와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다섯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하나님께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성과 남성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은 모두 영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이는 남녀의 성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이 영생의 상속자로서의 운명을 성취하도록 돕고자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절대적인 목표이자 목적은 우리의 궁극적인 승영이며, 또 우리가 알듯이 그분들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이끌어 승영에 이를 자격을 갖추 기회를 최대한 연계 할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골치 아픈 여러 사회적 문제에 휘말려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입씨름을 하면 대개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다툼만 생길 뿐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답을 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도로 주님께 간구한다면 느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아버지를 따르십니까?” 교회 회원이라면 한 번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확신이 설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께서 제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간증과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우리의 복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기꺼이 믿고자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 2. 교회는 신권 열쇠를 통해 다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그분의 교회는 신권 권세와 신권 열쇠를 통해 다스려집니다. “신권 열쇠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신권 사용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신권 지도자에게 주신 권세이다.”<sup>1</sup>

자신이 속한 정원회의 열쇠를 소유한 집사든, 와드의 열쇠를 소유한 감독이든, 스테이크의 열쇠를 소유한 스테이크 회장이든,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닌 교회 회장이든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지시 아래 충실하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 신권 권세를 행사하고 신권 권능을 활용하는 일을 맡 그대로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남녀는 열쇠를 지닌 사람들의 지시 아래 봉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201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일부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신권이 부여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남성은 신권을 베풀고 소유한 책임이 있지만, 남성이 곧 신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각자 하는 역할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성이 남성 없이 임신할 수 없듯이 남성도 여성 없이는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신권 권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영원한 관점에서 출산 능력과 신권 권능은 모두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sup>2</sup>

신권 직분에는 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성임될까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교회의 남성들이 신권을 갖도록 제정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며 여성에게 “이 위대하고 훌륭한 조직,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완전케 할 수 있는 능력”<sup>3</sup>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 요컨대 주님께서 왜 그런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는지 알려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르침의 절반 가량이 자매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자매들이 수행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상당합니다. 많은 봉사 기회와 봉사 활동 역시 여성들이 계획하고 주도합니다. 여성들은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 교회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본부 평의회에 참여하고 조언함으로써 통찰력, 지혜, 그리고 균형을 더해 줍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시도하든지 하늘의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도록 하려면 여성이 소유한 독특한 영적인 은사와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과, 남성이 소유한 신권 열쇠를 존중하는 여성이 함께해야 합니다.

## 3.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동등하다고 해서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책임과 신성한 은사는 그 본질 면에서 다르기는 하나 중요성이나 영향력 면에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리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면서도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과 관련하여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힝클리 회장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sup>4</sup>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은사와 다른 장점, 다른 관점과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하며, 교회에서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남성과 여성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의롭게 협력함으로써 서로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함부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4. 모든 사람은 신권 권능으로 축복받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성전에 가면 둘 다 같은 권능인 신권 권능으로 엔다우먼트를 받습니다. 신권 권세는 신권 열쇠를 통해 관리되고, 또 신권 열쇠는 오직 합당한 남자만 소유하는 반면에, 신권 권능과 신권 축복의 통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권능 면에서 관대하십니다. 모든 남녀는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권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이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천사의 성역으로 축복받으며,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충만한 복음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 5. 우리는 교리를 알고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고 가능한 수단을 다해 회복에 관해 간증할 교회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세계 역사상 지금보다 더 복잡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수천 년 동안 수중에 있는 온갖 무기들을 개량해 왔으며, 인간 가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데 능숙합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 청년 성인, 청소년, 소년, 소녀를 막론하고 모두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옹호하고 보호하며,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성 특유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신앙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하여 청년 야영 중 모닥불 주위에서든, 간증 모임에서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모든 것이 참됨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약을 맺은 하나님의 여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무엇을 믿는지를 세상에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은 남성이 복제할 수 없는 독특한 영역입니다. 그런 내면의 힘과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딸들인 여러분보다 더 큰 신념이나 능력을 지니고 구주를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심한 여성의 목소리가 가진 힘은 헤아릴 수가 없으며, 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단합해야 하는 시기에 서 있다는 간증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우리는 남녀, 청년 청년, 어린이를 불문하고 모두 함께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옹호해야 합니다. 그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한가로이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용기를 내어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단순한 복음 진리를 공부하고 이해하신 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나누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2013년 8월 20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2.1.1.
2. 엠 러셀 벨라드, “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이니라”, 리야호나, 2013년 5월호, 19쪽.
3. 고든 비 힝클리, “교회의 여성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70쪽.
4. 고든 비 힝클리,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1쪽.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 준비하기 위해 봉사함

하나님께서 아론 신권을 주신 까닭은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엘 벅  
본부 청남 회장

**제** 친구 조나단은 4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조나단은 그의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입니다. 아론 신권을 받은 후 조나단은 사람들을 위해 전에는 해 본 적이 없는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은 봉사하려면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합당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복음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주일 모임과 세미나리에 참석했습니다. 조나단은 계명과 교회 표준을 지키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권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를 통해 그러한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완수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충실히 신권 봉사를 하자 조나단은 영적인 힘을 얻었으며, 이 영적인 힘은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사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조나단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해에 그는 합당하게 멜기세덱 신권과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지금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은 흔히 “예비 신권”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신권을 주신 까닭은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론 신권을 지니고 충실하게 봉사한다면 앞으로 올, 더 큰 봉사 기회를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조나단처럼

여러분도 “성전 축복을 받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평생 주님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려고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2004년], 4쪽)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여러 훌륭한 기회를 자세히 알지 못할지라도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다음을 실천할 것을 늘 기억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분들을 만날 준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여러분은 신권 소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입니다. 이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하셨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시면서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런 후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성장하고 발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청소년기에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누가복음 2:52)

구주를 따르는 것에서 또 다른 부분은 청소년기에 지혜로워지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일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4:2 참조)





아론 신권 소유자:

나는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름

- 매일 기도와 경전 공부
- 순종
- 하나님의 뜻을 구함

다음과 같은 신권 의식을 집행함

- 성찬 축복
-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줌

다음과 같이 하여  
늘 성역을 베풀

- 가족과 정원회 회원들을 강화함
-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구조함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함

멜기세덱 신권을 받으려면

---



---



---

성전 축복을 받으려면

---



---



---

선교사로 봉사하려면

---



---



---

남편과 아버가 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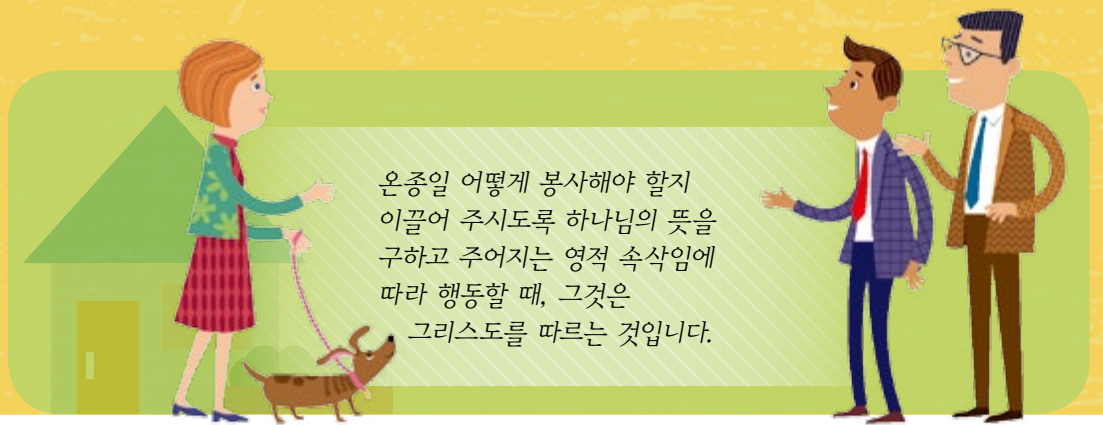
---



---



---



온종일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어지는 영적 속삭임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복음 공부, 순종,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께 잘 보이게 됩니다. 가족에게 친절하고 충실하며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가 되면, 사람들의 애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온종일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어지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 신권 의식 집행

신권 의식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필요하며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동등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집사가 되는 순간부터 성찬을 전달함으로써 신권 의식을 집행하는 일을 돕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침례를 주고, 다른 아론 신권 소유자들의 성임에 참석하는 등, 앞으로 계속해서 아론 신권의 신권 의식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려면, 순결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할 때 여러분이 집행하는 의식에 큰 영적인 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식에서 성스러운 도구를 매기에 모든 면에서 합당해지고자 노력하십시오.(교리와 성약 38:42 참조) 그렇게 할 때 와드나 지부 회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대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약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면,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여러분이 돕는 회원들도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 사람들을 늘 보살핌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성역을 베풀니다. 가족이나 친구, 정원회 회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핌 기회를 늘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신권을 통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사람들을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 복음 대상 가족에게 봉사하여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을 도울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회 회원들을 강화하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구조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금식 현금을 모으고, 병자와 장애인을 위해 그들의 손발이 되어 주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낙담한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하고자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것입니다.

정원회 모임이나 가정의 밤에 공과를 가르칠 때, 여러분은 성역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정원회, 학교, 또 어느 곳에서든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할 때(교리와 성약 20:59 참조) 여러분은 성역을 베푸는 것입니다.

###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선교사, 남편, 아버지로서 맡게 될 미래의 역할에서 요구되는 바를 부모님이나 고문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한 위대한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아론 신권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러한 책임을 위해 오를 수 있는 준비를 주어지는 빈칸에 적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오를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봉사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사람을 축복할 권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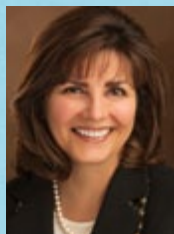
교회 지도자들은 신권 의식과 성약이 남자와 여자로 이뤄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모든 사람, 즉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고, 정기적으로 성찬을 취하는 모든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빛과 힘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습니다.[교리와 성약 138:37, 51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2쪽.



“신권 의식과 성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총명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구주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 의식과 성약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시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가 그분의 영원한 가족 안에서 그분과 살게 되는 축복, 즉 영생을 받을 기회를 줍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제1보좌 캐롤 엠 스티븐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쪽.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아들딸이 신권 축복을 받고 신권 권능으로 강화되도록 길을 마련하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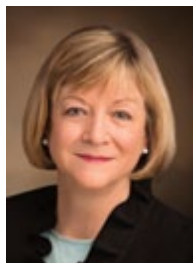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9쪽.



사진 출처: 게인 마스터링



# 가정에 신권의 축복을 가져옴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녀 회장

여러분이  
성약을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축복할  
신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떠한 간에 청남 청녀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침례 때 맺은 신권 성약의 권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계획에서 가족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열정적인 봉사를 가정 안에서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맺은 약속을 지키도록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강화하고 섬기기 위해 어떻게 성약의 권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시다.

##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월요일 저녁인데 숙제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정의 밤을 위해 가족들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 1: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아빠, 오늘 저녁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 해요!”

선택 2: 재빨리 형제자매들을 모으는 일을 돕고 유쾌하게 기도와 찬송, 공과에 참여합니다.

##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있을 때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에 가까이 참여함으로써 부모님을 돕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권 지도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다음과 같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도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 부모님의 교회 부름을 지지하고 집안에서 도움을 드리며, 특히 부모님이 특별한 임무로 바쁠 때 그렇게 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가 오면 부모님과 함께 그들을 맞이하고, 예의 바르게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 성전이 가까이 있는 곳이라면, 부모님이 성전에 가서 신권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생들을 돌보겠다고 제안합니다.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입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가정에 영을 초대하고 유지하는 것이 부모님만의 책임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영을 초대하기 위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는 많습니다. 가정에 영의 영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까?

####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없을 때

모두의 가족이 같은 형태를 띠거나 같은 방식으로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중 한 분과 살고 있거나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과 가족을 강화하는, 신권 권능이 임하게 할 방법은 많습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금식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영적으로 강해지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 영이 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부름 또는 교회에서 맡은 임무를 영화롭게 하도록 시간을 내고 일요일 공과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감을 얻고, 신권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 가족 모두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고 그들의 건전한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가족 전체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여러분이 교회의 반과 정원회에서 배우고 행하는 일들을 가족들과 나눕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르침을 가정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 단순한 친절의 행위로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집안일을 하고 형제자매를 도움으로써 가정에 도움을 줍니다.
- 가족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강한 가족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자신의 성약을 지키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침례 때 맺은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강화하겠다는 성약에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신권 성약의 권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권, 봉사, 그리고 가정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말들입니다. 구원 사업에 참여할 방법을 찾을 때, 가족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강화할 때 우리는 교회, 지역 사회, 그리고 세상을 강화하게 됩니다. ■



“여러분이 하게 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149쪽.



# 합당성에 대한 확신

아주 특별한 형태의 자신감을 갖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의 현재 삶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희망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어느 시대에나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겁 먹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멋진 기회와 큰 축복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과학과 기술, 의학, 통신 등 모든 분야가 발전하여 우리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사상 유례없이 세상 곳곳에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할머니들은 여러분 나이 때에 태블릿 PC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며, 어떤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을 모르십니다.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읽은 기사 때문입니다. 그 기사에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병은 당뇨병이나 심장병, 암 같은 것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여러분이 아니라 제 연령대에 해당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젊은이에게 가장 흔한 질병은 자기 의심, 장래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자신에 대한, 또한 주변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의 부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 차이는 매우 크지만, 저도 젊은 시절 대부분을 자신감이 생기기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 보냈기에 그런 걱정들을 잘 이해합니다. 성적을 잘 받으려 애쓰고, 장학금을 받고 싶어 하고, 왜 이런 면에서 남들보다 재능이 부족할까 고민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큰 경기에서 우승하고 싶고, 정말 탐내던 우승컵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하려 애쓰던 일도 기억합니다. 특히 소녀들을 대할 때 자신감이 부족했는데, 젊은 남성들에게 그것은 종종 큰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저와 데이트하겠다고 했던 홀런드 자매가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받아들여질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젊은이들에게 회의감과 자신감의





부족을 가져다주는 이런 당면 문제들을 논하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자신감, 즉 올바로 얻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는 확신, 특히 우리의 자존감과 미래를 보는 관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 개인적 합당성의 가치

여러 해 전,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오래 전에 저는 청년 대회에 연사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간증 모임이 있었는데, 한 잘생긴 젊은 귀환 선교사가 일어서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단정하고 확신에 찬, 그야말로 전형적인 귀환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간증을 시작하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젊은 후기 성도들이 모인 이런 훌륭한 무리 속에 서게 되어,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에 있었던 한 가지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느낌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 경험은 자기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열여덟 살 때 장로에 성임된 직후 데이트를 하고 집에 왔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그가 집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얼마 동안 차 안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젖어 있는데, 비회원인 어머니가 집에서 정신 없이 차 있는 쪽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데이트에서는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고, 공개석상에서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데이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광 자존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도 그 일은 충분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집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얼마 동안 차 안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젖어 있는데, 비회원인 어머니가 집에서 정신 없이 차 있는 쪽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방금 그의 남동생이 집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혀 발작 또는 경련 같은 것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회원인 아버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도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갈 때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 보렴. 이런 일이 생길 때 너희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니? 신권이 있으니 와서 어떻게 해봐.”

당시 그의 어머니는 우리 교회는 잘 몰랐지만 신권 축복에 대해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끔찍이 사랑하는 동생이 그의 신앙과 힘을 필요로 했으나 그 요청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필요한 때에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지 못할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결단코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갖고 있던 느낌과 잘못했다고 생각한 행동 때문에 그는 주님 앞으로 가서 필요한 축복을 간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거리로 뛰어 나와 이삼 년 전에 개종한 뒤로 와드에서 가깝게 지내 온, 자신보다 연배가 위인한 합당한 형제님의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그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마자, 두 사람은 곧 소년의 집으로 왔습니다. 구급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간증 모임에서 전해 준 이 이야기는 그 형제님이 즉시 편안하고 힘찬 축복을 해 주었고, 다친 아이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정을 찾았다는 행복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후유증이 남을 만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걱정하던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후 그 귀환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 앞에 닥친 일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신권을 지녔음에도 행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겪은 부끄러움과 슬픔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동생이 저를 필요로 했고, 비회원이었던 사랑하는 부모님은 두려움에 떨며 제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일이 더욱더 고통스런 기억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앞에 서면서 저는 이런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필요할 때에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지 못할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개인적인 합당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전쟁과도 같은 일이지만, 저는 이기고 있습니다. 삶에서 저를 질책하는 손가락을 한 번 느껴 보았으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기분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간증을 끝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간증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 간증 모임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 간증이 끝난 뒤 감돌던 영적인 고요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기 영혼을 좀 더 깊이 살피며 주님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힘찬 말씀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더 굳게 결심했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121:45~46; 강조체 추가)

### 하나님의 영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고, 미래에 대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훌륭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이 젊은이가 했듯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활하고, 계획하고, 믿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런저런 기억을 떠올려 양심에 걸릴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영을 누리고, 주님의 면전에서 항상 그런 확신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정결한 생각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늘 순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06년 12월 31일에 전한 청소년 노변의 모임 말씀에서 발췌.

# 문과 길

우리는 신권 의식과 성약을 통해 영생의 길에 들어서고 지금 당장 필요한 힘을 받습니다.

**우** 리 모두는 영생을 추구합니다. 영생은 구원받고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승영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가족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를 믿는 신앙에 더하여 우리는 신권 의식과 성약을 통해 영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그 길에 들어섰든, 그 길의 어느 지점에 있든, 교회 안에서 태어났든 나중에 개종했든, 평생 활동적이었든, 아니면 이제 다시 교회 활동을 하게 되었든 간에, 자신의 성약에 집중하고 성약을 맺고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은 그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권 의식과 성약이 단지 영광스러운 미래의 약속만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권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의로움 안에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힘과 위안과 도움을 줍니다. ■

영생에 이르는 길  
(끝까지 견뎌)

니파이후서 31장 참조

문



침례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신권 권세를 통해 가족을 결속하고 우리 각자가 해의 왕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자격을

얻게 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약을 맺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  
“개인적인 평화: 의로움의 보상”,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4쪽.



성찬—매주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함

성신의 은사



## 길 위에서 받는 도움

**경전**—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에 맺은 성약의 일부로서 주어지는 인도와 지침(교리와 성약 84:57 참조)

**기도**—“[주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그를 기억하라’는 성약과 ‘항상 기도하라’는 경고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서 의지하게 하십니다.”(President Henry B. Eyring, First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Always,” *Ensign*, Oct. 1999, 9)

**봉사**—부름을 수행하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복음을 나누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등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성약을 이행하는 것

**회개**—우리가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성약을 기억하고 구주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때로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도 포함됨

### 성전 인봉



**영생**  
(가족과 함께하는 해의 왕국)

필수적인 의식과 성약  
새롭게 하고 강화하는 의식

축복사의 축복—특별한  
개인적 인도와 약속된 축복



(청남을 위한) 신권 부여와 성임

성전 엔다우먼트

병자  
축복—도움과  
치유



가장의 축복 및 기타 위안과 조언이  
되는 축복—필요 시 평안과 인도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거룩한 곳에 굳게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9쪽.

“성약과 계명, 의식으로 다져진 복음의 길에 머물 때 우리는 보호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권능”,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5쪽.

“합당하게 신권 의식에 참여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힘과 평안과 영원한 관점을 주실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Neal 앤더슨 장로, “신권

## “학교에서 낙태와 같이 복음 가르침에 위배되는 주제가 언급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 황에 따라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침묵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일에 동조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간단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말이 분쟁만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의견을 말할 다른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토론에 참여하라고 하신다면,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한 후 여러분이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전과 연차 대화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에 충실함, 복음 원리, 또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에서 그 주제를 살펴보십시오. 또한 가정의 밤에서 그 주제를 설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이나 급우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와드의 청년 고문이 가르쳐 준 것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에 반 친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알고 성신이 여러분에게 말해 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교실에서 듣거나 읽게 되는 잘못된 것들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대응할 때, 사람들은 그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압하거나 강요하지 말되, 여러분의 믿음을 옹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들린 케이, 16세, 미국 와이오밍



### 예의 바르게 대화하십시오

저는 예의 바르게 제 견해를 나누고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와 똑같이 생각하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알고 저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브리나 에스, 16세, 미국 오리건



### 존중하십시오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은 적을 만들고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 종교에 반하는 주제가 거론된다면 차분하게 집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되,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음성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해나 엠, 18세, 미국 유타



**교회의 가르침을 나누십시오**

저는 그런 질문에 답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친구들과 선생님은 제가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한 그런 주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나중에라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구를 기억하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조슈아 엠, 16세, 영국 맨체스터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 보도록 도우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낙태와 같은 많은 주제가 학교에서 자주 토론에 부쳐지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과 표준을 나누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나눈다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매디슨 알, 14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으십시오**

우리는 선교 사업을 중요시하는 교회에 속해 있으며,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며,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한 회복된 복음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데이비드 엠, 16세, 콩고 민주공화국 카사이-옥시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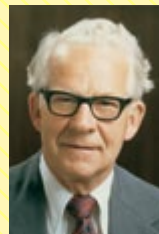


**교회의 입장을 알아두십시오**

제가 참석하는 수업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들이 토론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급우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교회와 직접 상충될 때에는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십시오. 대답을 하면서 교회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셉 지, 18세, 미국 메릴랜드

**분쟁을 피하십시오**

저는 제 의견을 설명하고, 교회의 원리와 교리를 옹호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분쟁을 피할 것입니다. 분쟁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나 브이, 15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굳게 서십시오**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입장을 이성을 가지고 우정 있는 설득과 분명한 사실로써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굳건하게 서서 도덕과 복음의 영원한 원리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나 조직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분쟁은 벽을 쌓고 장애물을 놓습니다. 사랑은 문을 열어 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 “다들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9쪽.

**다음 질문**

**“감독님에게 문제나 걱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분께 대해 편안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 5월 15일까지 여러분의 대답과 함께, 원한다면, 고해상도 사진을 우편(3쪽의 주소 참조)으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 참인가 거짓인가?

때로는 참과 오류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말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강력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참** /거짓 문제를 풀어 본 경험이 있다면 거짓을 찾아내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앙, 믿음, 일상생활과 관련된 굵직한 질문들 가운데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이 지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늘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채 시험을 보는 사람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진리와 대적의 거짓말을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많은 은사를 주셨다.

## 여러 종류의 거짓

우선 설명을 위해 간단한 참/거짓 퀴즈를 풀어 보자.



1 1 달은 초록색이다.  
 참  거짓

아폴로 12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달에 착륙한 최초의 인간으로, 그 사건이 "인류에게 커다란 도약"이었다고 말했다.

2  참  거짓





# 3

미 항공우주국(NASA)은 1969년에 화성에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달에 가야만 했다.

- 참
- 거짓



태양풍, 방사선, 우주방사선과 그 밖의 장애물들 때문에 유인우주선의 달 착륙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증인들의 말이 일부 세부 사항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국 정부가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 틀림 없다.

- 참
- 거짓

# 4

## 현대의 거짓말

여러분의 생각, 믿음, 선택,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관련하여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 유형의 거짓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 “거짓의 아버지”(니파이후서 9:9)인 사탄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속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과, 이에 우리가 진리로 대응하는 방법의 몇 가지 예이다.

각 문제에 대한 답은 거짓이며,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직면할 거짓의 기본 유형 중 일부이다.

1번 문제는 단순한 거짓으로 뻔한 오류이다. 2번 문제는 부분적으로 참이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상의 참을 한 가지 거짓과 섞어 두었기 때문이다.(아폴로 12호가 아니라 아폴로 11호이다—그렇군!) 3번 문제는 잘못된 이분법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유일한 선택 사항은 아닌데도 그 두 가지 선택 사항만 제시되어 있다.(예를 들어 NASA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4번 문제는 “논리적인” 주장인데, 합리적으로 들리나 종종 잘못된 근거를 들어서 특정한 거짓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 단순한 거짓

#### 잘못된 생각:

음란물은 정상적인 것이며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

#### 그 결과(터무니없는 거짓말):

괜찮으니 음란물을 보아라.



진실:

음란물은 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왜곡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한다.

### 부분적 진실

#### 잘못된 생각:

각 사람은 독특하며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 수 있으므로 자신이 느끼는 것과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 그 결과(터무니없는 거짓말):

하나님이나 교회가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그냥 해라.



진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가 최고의 존재가 되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진실을 아는 방법

그렇다면 진실에 대한 더 완전한 관점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어떻게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도록 주신 몇 가지 강력한 은사이다.

-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은 이 성을 가진 지상의 모든 개체들로 하여금 진리와 오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을 활성화시킵니다.”<sup>1</sup>
- **성신.** “진리의 성령이 ……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한복음 16:13)
- **경전.** “하나님은 경전을 통해서 옳지 못한 생각과 잘못된 전통, 죄와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밝히십니다.”<sup>2</sup> 물론 경은 이런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 책은 “그리스도의 적들을 노출시킵니다. 거짓 교리들을 무너뜨리며, 다름을 가라앉게 합니다.”(니파이후서 3:12 참조)<sup>3</sup>
- **현대의 선지자.** “[선지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과 참된 본성을 인간에게 알리는 것이며 …… 죄를 비난하고 그 결과를 예고한다.”<sup>4</sup>
- **교육.** “성도는 ……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합니다. 교육, 특히 경전 공부를 통해 우리는 ……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교리와 성약 88:118 참조)”<sup>5</sup>

세상의 수많은 생각과 개념에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혐오나 편협함과 같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충실하면서도 누구에게나 동정심, 존중, 친절을 보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잘못된 생각:

물문경의 일부 내용은 현재의 과학적 증거에 논박 당하고 있으며 그 책이 번역된 방법에 대한 언급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셉 스미스는 이 책을 지어 냈거나 어디선가 표절한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터무니없는 거짓말):

물문경은 참되지 않으며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교회와 관계를 끊어라.



과학은 물문경에 담긴 많은 것들을 확인해 주며, 물문경에 반하는 “증거”에는 결함이 있다. 그러나 물문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신에게 그 책이 참되며 조셉 스미스가 참된 선지자였다고 말해 주는 영의 증거이다.

직면하여 참 또는 거짓이라고 답하는 것이 늘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사들은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주

1. 리처드 지 스코트,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5쪽.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경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3쪽.
3.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물문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빛*, 1988년 5월호, 3쪽.
4. 경전 안내서, “선지자”, 134쪽.
5. 러셀 엠 벨슨, “나의 교회는 이렇게 불리우리라”, *성도의 빛*, 1990년 7월호, 19쪽.

대화에 참여하세요

일요일을 위해 숙고할 것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진리를 인식하도록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 여러분은 어떻게 오류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이 진리를 찾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고 믿게 되었는지 나누십시오.
- 소셜 미디어에 진리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나눕니다.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 “그건 정말 쉽네요, 할아버지!”

“너희가 [경전]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경전]을 연구하거나와 이 [경전]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

**저**는 몰몬경과 저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어느 날 저는 손녀 라쿠엘에게 몰몬경을 읽는 목표를 세우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라쿠엘은 최근에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몰몬경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손녀에게 한 쪽을 읽어 달라고 한 후 초시계를 꺼내 시간을 켜었습니다. 아이가 한 쪽을 읽는 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페인어 몰몬경을 읽는데, 스페인어 몰몬경은 642쪽입니다. 저는 손녀에게 몰몬경을 다 읽는 데 1,926분이 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손녀가 이 숫자에 더 움츠러들까 봐 그 숫자를 60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3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자 손녀는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쉽네요, 할아버지.”

라쿠엘과 그 오빠 에스테반, 그리고 또 다른 손자 손녀들은 이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몰몬경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가 몰몬경을 읽을 때에는 읽은 내용에 대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쿠엘과 에스테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경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103) ■

201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 포터의



캐롤 엠 스티븐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가족은 함께 모여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맞이하던 그날 저녁 내내 저는 열 살 난 제 손자 포터가 증조할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 곁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때때로 그 아이는 뒤에 서서 증조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증조할머니의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안아 드리고,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간 그 광경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터에게 이메일을

보내야겠다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포터에게 그가 맺은 침례 **성약**을 상기시키면서, 모사이야서 18장에 나오는 엘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 영생을 얻고자 한즉 -

…… 이것이 너희 마음의 원하는 바일진대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너희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8~10절)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께 기꺼이



# 약속

성약은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가 맺는 약속입니다.

봉사해야 한다는 엘마의 가르침을 포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증조할머니께 사랑과 관심을 보여 준 것은 바로 너의 **성약**을 지킨 것이기도 했어. 매일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보이고, 서로 돌볼 때,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거란다. 네가 **성약**을 지키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침례 **성약**을 지킬 때, 너는 신권에 성임되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란다. 신권 성임으로 맺게 되는 또 다른 **성약**은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봉사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성전에서 **성약**을 맺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좋은 모범을 보여 주어서 고맙구나! **성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어 고맙다!”

포터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감사드려요. 제가 증조할머니를 안아 드릴 때마다 **성약**을 실천하는 것이었다는 건 몰랐지만, 따뜻하고 정말 좋은 기분은 느꼈었죠. 저는 그것이 성신이 제 마음속에 전해

주신 느낌이라는 걸 알아요.”

포터가 **성약**을 지키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그와] 함께 하도록”[교리와 성약 20:77] 한다는 약속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안다는 것에서 저도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

“우리가 기뻐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15~16쪽에서 발췌.



## 성약을 지키는 자가 되세요!

침례 받을 때 나는 ……

사랑과 친절을 보이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

성신이 언제나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서명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대해  
더 배워 봅시다!

#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중심이다



젠 테일러

**미**샤는 블록으로 탑 쌓는 것을 좋아했지만 블록이 바닥으로 쓰러지면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샤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탑을 쌓을 때 밑바닥에 블록을 더 많이 놓으면, 탑의 기초가 더 튼튼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을성 있게 연습해야 했지만 조금 지나니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샤가 더 튼튼한 탑을 쌓는 법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더 튼튼한 가족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들과 딸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올 때가 되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족에게 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족이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돕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가족이 더 튼튼한 토대에 서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연습하면 더 튼튼한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노래와 성구

- “가족은 영원해”,  
(어린이 노래책, 98쪽)
- 누가복음 6:47-49

##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누가복음 6장 47-49절을 읽어 봅시다. 그런 다음 이 경전 구절들에서 가족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서로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여러분은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화. 제니 아이디어





가족 기도

함께 저녁 식사 하기

가정의 밤

같이 놀기

가족 경전 공부

아픈 사람 문병 가기

선교사에게 편지 쓰기

조상에 대한 이야기 배우기

### 우리 가족을 튼튼하게 만들기

여러분의 가족이 더 굳건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 어른의 도움을 받아 블록을 오려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블록을 종이 위에 풀로 붙입니다. 이 블록들은 여러분 가족의 기초를 나타냅니다.
- 여러분의 가족이 하고 싶거나 더 잘하고 싶은 것이 나오는 블록을 고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블록을 탭에 놓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놓고 가족을 튼튼하게 해 주는 블록을 계속 추가합니다.

빈 블록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적어 보세요.

명석한 생각

# 침례는 제자의 길을 떠나는 첫걸음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201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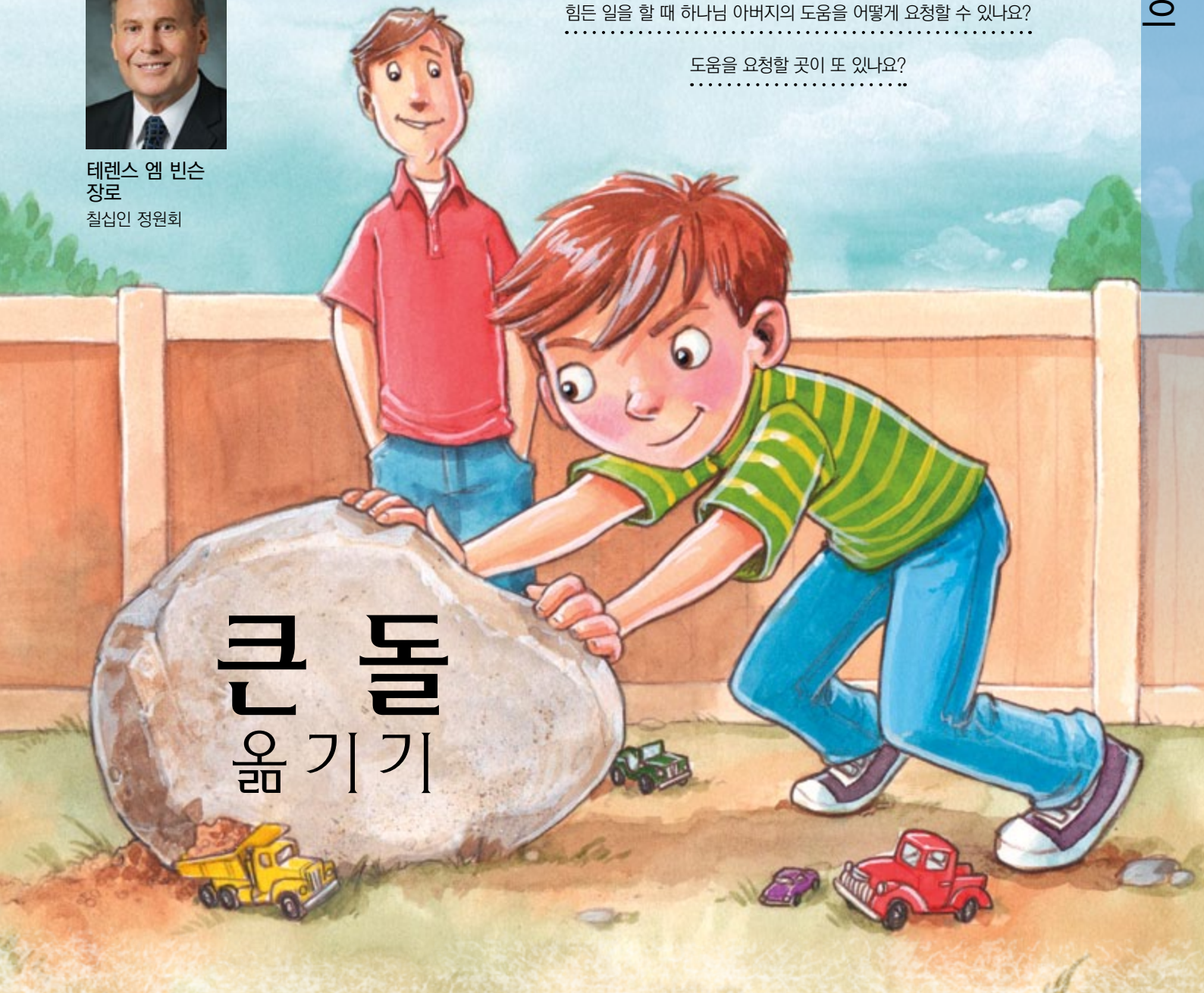


테렌스 엠 빈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하기 아주 힘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힘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

도움을 요청할 곳이 또 있나요?  
.....



# 큰 돌 옮기기

**한** 어린 소년이 뒤뜰에서 자동차 놀이를 하기 위해 흙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큰 돌이 박혀 있어 방해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밀고 당기며 안간힘을 써 보았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돌을 뽑아 내려면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단다.”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했는걸요!”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너는 아직 내 도움을 받지 않았잖니!”

그리고 함께 몸을 웅크린 두 사람은

그 큰 돌을 쉽게 굴러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더욱 지속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105쪽에서 발췌.





# 저는 필리핀에 사는 드리아입니다

## 마부헤이, 카이비간!\*

애미 제인 레빗의 인터뷰에서

**섬**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친구는 알레헨드리아인데, 가족과 친구들은 그 이름을 간단하게 줄여서 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드리아는 필리핀 세부 섬에서 아빠, 엄마, 두 자매와 함께 삽니다. 오빠도 한 명 있지만 드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은 영원하기 때문에 언젠가 오빠를 보게 될 거예요.” ■

\*타갈로그어로 “안녕, 친구들!”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무용입니다. 저는 발레를 배우는데 내년에는 뽀엥뜨 등급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끝으로 춤을 출 때 필요한 발레용 토슈즈를 신게 됩니다.



필리핀에는 섬이 7,000개가 넘고, 그래서 가볼 만한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해변에서 가깝고 저는 바다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수영도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서 수영을 익혔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른 해변을 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팔라완 섬에도 갔었는데,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스노클을 하고 다이빙을 했는데,形形色색의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몇몇 친구들이 물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이 있고 뒤에는 신앙개조가 적혀 있는 전도카드를 학교에 갖고 갔습니다. 친구들이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을 읽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필리핀 세부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헌납되기 전에 우리 가족은 함께 성전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성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떠납시다!

드리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방에 넣어 가고 싶나요?





# 예수님 생각하기

마블 존스 가뭇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 언덕 위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고난과,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먼지 나는 길과



예수님이 사랑과 믿음을 심어  
주셨던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공손히 듣고, 발을 가만히 두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작아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





##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

성찬식은 조용히 앉아서 구주에 대해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절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덕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이세요.

#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

스탠 펙슬리

**20**01년 9월 12일,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에서 우리 부부는 출산을 기다리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건물에 있는 모든 텔레비전에서는 전날 뉴욕에서 발생한 사건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한때 뉴욕 하늘에 우뚝 솟아있던 두 고층빌딩이 돌무더기와 먼지로 변해 버린 영상이었다. 여러 시간 방송된 그 영상을 보며 우리는 절망감을 느꼈다. 아기를 세상에 데려오기에는 최악의 시기이고, 너무 어둡고 험악한 세상인 것 같았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우리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 조그마한 아기를 품에 안고서 지난 며칠간 있었던 끔찍한 사건들을 생각하다 보니 1988년에 엘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화재가 떠올랐다. 그 화재로 거의 3,20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숲이 타 버렸다. 공원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것 같았다. 뉴스 영상에는 검게 그을린 땅과 하늘을 질게 뒤덮은 검은 연기만 보일 뿐이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잃어버린 것을 금방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다. 자연이 지닌 끊임없는 재생 능력과 생명력조차도 불이 지닌 파괴적인 힘에는 한참 모자란 것 같이 보였다.

하지만 이듬해 봄에 소리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조그만 식물과 꽃들이 까맣게 타 버린 흙을 뚫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꽃과 관목,



*우리를 세차게 때리며 제압하려고 위협하는 바로 그 바람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씨앗을 뿌린다.*

나무들이 땅에서 싹을 틔웠다. 공원의 재탄생 과정은 느렸지만 자그맣고 영광스러운 세세한 것들이 가득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엘로스톤의 그 이글거리던 불꽃처럼 우리를 집어삼켜 버릴 것만 같았던 두려운 순간, 우리의 신앙과 희망이 한계에 달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악한 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토대가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힐라맨은 이 토대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그분께 뜻을 내린다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우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우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이기 때문이다.”(힐라맨서 5:12)

세상에서 악과 유혹의 광포한 힘과 마주칠 때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이 작고 단순하여 오히려 그 힘에 밀리고 압도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잘못이 고쳐지고, 고통이 완화되고, 의문이 해소되기를 헛되이 기다리면서 의심과 절망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를 세차게 때리는 바로 그 바람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씨앗을 뿌리며, 복음의 엄청난 힘이 희망과 생명이 담긴 수백 개의 작은 씨앗을 준비하면서 지상의 흙 속에서 가만히 작용하는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에 산다.





삽화: 로버트 티 버렛

## 하워드 더블유 헌터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열다섯 살 때 이글 스카우트상(청남을 위한 성취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계보**에 관심이 많아 자주 교회 계보 도서관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사도로 봉사하는 동안에는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의 부지 선정을 도왔습니다. 교회 회장으로서 그분은 회원들에게 성전 예배를 자주 하도록 권고했으며, 세상을 떠나기 약 두 달 전에 **유타 바운티폴 성전**을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 이번 호에서

## 청년 성인에게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전 세계 곳곳의 청년 성인들이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단정하게 생활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

40쪽

## 청소년

달은 푸른 색인가? 달 착륙은 꾸며낸 이야기인가? 이 퀴즈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말 사이의 차이를 알아내는 법을 배운다.



### 참인가 거짓인가?

64쪽

## 어린이

### “그건 정말 쉽네요, 할아버지!”

하루 반 만에 물문경을 전부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깜짝 놀라겠죠?



67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